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호 [루계 제25901호] 주체107(2018)년 1월 27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연구보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4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체스꼬, 스위스, 스웨리예, 오스트리아, 에스빠냐, 에짚트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신년사는 올해 조선인민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밝힌 지침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고무적기치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그는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북남관계개선, 조국통일을 위한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여있다고 하면서 올해에도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난해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강화와 경제강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한 자랑스러운 한해였다.

스웨리예에 있는 조선의 벗들은 조선인민이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민족적대경사인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나라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길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기 바란다.

오스트리아 고오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청년소조 책임자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지난해 조선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것은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에 의해 창조된 빛나는 결실이다고 격찬하였다.

에스빠냐 마드리드주체사상연구소조와 에짚트의 여러 정당, 단체인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의 주요내용에 대한 해설에 이어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한 막강한 억제력이라는데 대하여, 조선반도의 통일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 등 여러 의제들로 토론하였다.

체스꼬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대한 독보회, 해설모임들이 2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로씨야, 로므니아, 도이췰란드, 에티오피아, 나이제리아에서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강위원회 제1비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난 기간 조선인민이 미국의 극악한 대조선압살책동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굳건히 지켜나가고계신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류례없는 제재속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수많이 일떠선것은 조선인민의 강의한 의지와 높은 창조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이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은 지난해 조선인민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보장의 영원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조선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 프랑켄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2017년은 조선인민이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자랑찬 승리의 해, 제국주의자들의 대조선압살책동이 물거품으로 된 해였다, 머지 않아 세계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이 어떻게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서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고 말하였다.

에티오피아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신년사에는 조선인민이 나아갈 길이 환히 밝혀져있다, 그이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대로만 하면 조선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통일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네트에 게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로씨야 크니쥬느이 미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7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를 알제리 알좌자이르 타르잘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0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출판사 사장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열렬히 존경하고 흠모하는 김정은원수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의 요지를 그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경축 방글라데슈준비위원회가 16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엠디. 하룬 아르 라쉬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경축모임,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 마쟈르준비위원회가 15일 부다페슈트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튜르메르 쥴라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 체스꼬준비위원회가 9일 쁘라하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제1부위원장 요제프 쎄프비스따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금속공업부문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철강재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금속공업성 당조직에서는 성일군들부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심장에 조이박고 금속공업부문앞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결사관철할 불같은 열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도록 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금속공업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일군들은 올해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있다.

각지 제철, 제강소들에 내려간 성의 일군들은 일터마다에서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강철전사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철의 기지 강선에 내려간 성의 일군들과 이곳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전후 강철전사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낸 그때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의 앞장에서 내달리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일군들은 기술자, 용해공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앞선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적은 자재로 생산을 더 많이 내기 위한 방도를 찾고있다.

이에 고무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차지당 강철생산을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아 어려운 조건에서 지난 17일까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은 량의 강철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혁명의 전세대들이 발휘한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주체철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새해 첫날 하루 주체철생산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한 황철로동계급은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철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여 1월 상순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내려간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은 이곳 로동계급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 연료에 의거한 선철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큰걸음을 내짚고있다. 그들은 전세대 강철전사들의 투쟁자료들을 가지고 대중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현실과 밀접히 결부하여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년초부터 우리 식의 선철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김철로동계급은 지난 16일부터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쇠물을 뽑아내였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부령합금철공장을 비롯한 금속공업부문 각지 공장, 기업소, 광산들에 내려간 성의 일군들도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45만산대발파로 새해 첫 진군포성을 울린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광부들속에 들어간 성의 일군들과 이곳 일군들은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면서 철정광증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윤금찬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첫달 전력생산계획 넘쳐 수행

원산청년발전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끓어넘는 격정속에 받아안은 원산청년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력생산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뜻깊은 새해의 첫날 전투에서부터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높이 세운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집행하여 1월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전력증산투쟁에 떨쳐나선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발전소의 일군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데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갔다.

일군들은 겨울철조건에 맞게 물관리를 잘하며 수력구조물들의 기술관리를 짜고드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 한방울의 물이라도 전력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였다.

일군들은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찾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면서 발전설비들의 정비보수를 다그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1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새해 첫날부터 전력증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렸다.

이들은 겨울철조건에 맞게 수력구조물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일간점검과 순회점검을 강화하면서 발전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매일 맡겨진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었다.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발전기보수전투도 힘있게 벌리였다.

2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였다.

3호발전소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 종전보다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4호발전소의 생산자들 역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언제와 수력구조물관리를 맡은 로동자, 기술자들도 전력생산을 함께 책임지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언제와 수력구조물, 발전설비들의 점검과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1월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원산청년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1월 전력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대고조 전투장들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증산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현일

관개용수문제해결에 력량을 집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각지 농촌들에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기 위한 농사차비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온천, 태탄군들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다.

온천군에서

농사차비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는 온천군에서 물길가시기전투가 통이 크게 벌어졌다.

물동파능력을 높여 수천정보의 포전들에 대한 물보장을 더 잘하기 위해 계획한 이 전투에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군안의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도 힘차게 떨쳐나섰다.

물보장이자 알곡증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한 이들은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끓이면서 언땅을 까내여 바닥수평을 고루고 물길둑을 든든히 보강하였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연 10여㎞구간에서 단계별로 진행된 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군에서는 이 성과에 기초하여 양수장들의 설비들을 수리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활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수천정보의 포전에 대한 물보장을 맡고있는 대형양수기들의 수리정비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과 해당부문 근로자들은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현일 정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전동기수리와 함께 날개축을 비롯한 양수기부속품들을 생산하고 용착 및 가공하는 사업을 해당단위와의 련계밑에 적극 내밀고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만난을 뚫고나갈 열의에 충만된 근로자들은 발동발전기를 리용하여 자체로 전기를 보장하면서 용입판을 비롯한 다른 설비들의 수리전투를 다그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태탄군에서

태탄군에서 저류지능력확장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군일군들은 여러 협동농장들에 있는 저류지들의 능력을 높여 백수십정보의 포전에 물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이 공사를 계획하였다. 더 많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연 수십리의 물길을 형성한데 기초하여 저류지능력확장공사를 와닥닥 다그쳐 끝낼 작전밑에 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10여만㎥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물문제를 해결하여야 모든 포전에서 다수확을 내여 황금벌의 력사를 더욱 빛내일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이미 옥압, 수동리의 저류지들의 능력을 확장한 기세로 다른 대상공사에 힘을 넣고있다.

이 공사를 통해 큰 실리를 얻고있다. 성남리의 한 저류지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된 해염도가 나오고있다. 군에서는 굴착기와 자동차들을 동원하여 이것을 농장들에 집중수송하면서 저류지능력확장공사속도를 높이고있다. 군에서는 매일 평균 1 000여t의 해염도를 수송하는 성과를 올리고있다. 동시에 저류지능력확장공사를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현존수송능력을 높여

신의주철도분국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신의주철도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철길을 개명하고 현존수송능력을 높이며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특히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며 철도에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렬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신의주철도분국의 일군들은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고 기관차와 객화차수리정비를 앞세우면서 렬차의 정상운행과 철도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분국의 일군들은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전투장으로 옮기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고있다. 일군들은 모든 역들에서 구내의 일부 철길의 나무침목을 콩크리트침목으로 교체하며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또한 모든 역들에서 렬차를 받고 떠나보내는 절차를 제정된 규정대로 진행하여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신의주기관차대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기관차대의 일군들은 사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과 기관차승무원들은 자검자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도중검사를 엄격히 하면서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기 위한 증송투쟁을 힘있게 벌려 매일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신의주청년객화차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객화차바퀴와 전기용품준비를 선행시키고 철관을 자체로 해결하여 객화차수리정비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신의주청년렬차승무대 일군들과 렬차원들은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깊이 새기고 신년사의 기본정신과 내용을 해설선전하면서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신의주침목생산대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과학기술이자 생산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무볼트식콩크리트침목생산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콩크리트침목생산의 흐름식생산공정을 1월중으로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분국의 모든 전투장들에서는 련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20)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신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리

2월 8일을 조선인민군창건일로 의의있게 기념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하여 온 나라 천만군민이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는 때에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은 우리는 새 조국건설시기관 5호실을 돌아보았다.

이곳에서 우리는 강사의 해설과 전시된 자료 등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업적에 대하여 더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민주의 터전우에 다져주신 튼튼한 토대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의 오늘이 있는것이 아닌가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강력한 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요구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짧은 기간에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강사는 참관자들을 먼저 《군사정치간부 양성》이라는 글발이 부작되여있는 벽면앞으로 이끌었다.

그는 새 조국건설의 3대과업의 하나로 건군로선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우리 나라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는 자기의 강력한 민족군대를 창건하여야 한다고 천명하시였다.

온 나라가 맨주먹으로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서야 했던 그때에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한다는것은 여간만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현대군사과학과 기술로 무장된 군사정치간부도 부족하였고 군사장비를 생산보장할만 한 공업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게다가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은 《시기상조》론을 꿰들고 우리의 정규군건설을 여러모로 방해해나섰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난관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시였다.

해방조국의 첫 기슭에서 우리의 정규군건설이 어떻게 시작되였는가를 전해주는 벽면에는 우리 혁명무력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군사지휘관들을 키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강사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육성된 항일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로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하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실현을 위하여 군사정치간부들을 키우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사실들을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주체34(1945)년 1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룡강군 다미면 지울리(당시)에 나오시여 평양학원의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학원의 이름을 조국에 돌아와 처음으로 세우는 학원인것만큼 평양의 이름을 따서 《평양학원》이라고 짓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학원을 창설하고 여기에서 현대적정규무력의 골간이 될 군사, 정치간부들을 많이 키워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학원의 운영과 교수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몸소 평양학원의 명예원장이 되시여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제1기 첫 강의를 하시였으며 학원의 개원식에 참석하시여 축하연설도 하시고 그후에도 자주 찾아오시여 학원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면서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로고에 대한 강사의 해설은 참관자들의 깊은 감명을 자아냈다.

《평양학원 탄생 전국간부양성》, 《평양학원 졸업식 제1회 5백명 투사배출》…

벽면에 전시된 당시 《정로》의 보도자료들은 평양학원의 창설과 더불어 짧은 기간에 나라의 군사정치간부양성에서 일어난 전변을 말해주고있었다.

호실에 전시되여있는 **《평양학원 개원식을 축하하여》, 《보안간부훈련소의 당면과업》, 《참다운 인민의 군대, 현대적인 정규군대를 창건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군건설사상과 비범한 예지로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게 하였다.

강사는 중앙보안간부학교, 평양학원 항공반, 수상보안간부학교, 보안간부훈련소, 조선항공협회, 평양학원 비행대, 수상보안대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력한 정규군대를 창건하기 위하여 친히 내오신 지휘관양성기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꼽으면서 정규무력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해설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규무력의 골간을 이룰 유능한 군사정치일군들을 육성하는 사업과 앞으로 창건될 우리 군대의 핵심부대들을 꾸리고 필요한 군종, 병종부대들을 편성하기 위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였다.

이와 관련한 당시의 력사자료들가운데는 공군무력건설에 공헌한 리활동지의 사진도 있었다. 참관자들은 사진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이 나라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우리 혁명무력을 떠메고나갈 어엿한 핵심들로 자라났음을 뜨겁게 느끼였다.

숭엄한 마음을 안고 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눈앞에 조선인민군 군기를 옹위하여 서있는 세명의 인민군군인들을 형상한 조각군상이 안겨왔다.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켜선 인민군군인들.

조각군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태여난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의 모습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었다.

우리는 《정규적혁명무력 건설》이라는 글발이 부작된 벽면에서 주체37(1948)년 2월 8일의 력사적의미를 깊이 새기게 되였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조선인민군 열병식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이 벽면의 중심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이날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규적혁명무력의 탄생을 궁지높이 선언하시고 우리 인민군대의 성스러운 사명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군 열병대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 이름도 조선인민군! 장엄! 평양역두에 열병식》, 《환호의 폭풍속에 시가행진은 계속》이라는 글들이 씌여진 신문자료들, 조선인민군 열병식장에 들고나갔던 군기, 조선인민군 군종, 병종군복들은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그날의 력사적광경을 생동하게 그려볼수 있게 하여주었다. 마치도 그날의 열병광장에 메아리치던 만세의 함성이 들려오는듯싶었다. 정규적혁명무력으로 자라난 미더운 무장대오가 굽이쳐간 바로 그 길이 전승의 열병광장으로,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주체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열병광장들에로 끝없이 이어져왔음을 더욱더 절감할수 있었다.

벽면에는 수령님께서 항일의 피어린 밀림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으며 그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을 세우시고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과 혁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을 가지게 되였고 제국주의의 어떠한 침략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게 되였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형의 혁명적정규무력이 창건된 력사의 2월 8일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웅적조선인민군에 대하여, 존엄높은 우리 조국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음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우리는 참관을 이어갔다.

다음벽면에서 참관자들은 뜻깊은 영상사진문헌들과 전시된 자료들을 보며 우리 인민군대가 어떻게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보위하는 강유력한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는가를 깊이 새겨안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시기 군사정치간부양성사업을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시는 한편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였다.

《자립적국방공업 창설》이라는 글발아래에 우리 나라 군수공업의 력사가 시작된 평천혁명사적지가 형상되여있는 벽면앞에서 참관자들은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흙먼지날리는 평천벌을 헤치시며 나라의 병기공업을 창설할 터전을 닦아주시였다고 하면서 바로 이 길은 조국의 무장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담보해주신 길이였다고 감동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강선길에 앞서 걸으신 평천길》, 벽면에 부각되여있는 이 글발이 참관자들에게 새겨주는 의미는 참으로 컸다.

해방직후 찾으셔야 할 곳들이 많았지만 강선길에 앞서 평천길을 먼저 걸으시며 우리 나라 병기공업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무장장비개선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맹이나 다름없는 빈터우에서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인민군대를 무장시킬수 있었다.

병기제작부문의 기술자들을 몸돌여 키워주시고 전본으로 새 기관단총도 보내주시였으며 무기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들도 보충해주시였을뿐아니라 기관단총의 첫 시제품이 나왔을 때에는 총의 부족점과 그것을 고칠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아래 얼마나 자랑찬 결실이 이루어졌던가.

참관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기관단총의 시험사격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기관단총을 억세게 틀어쥐고 사격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느라니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기관단총을 만들어낸것은 우리 나라 군수산업의 첫 승리이며 우리 인민이 새 조국건설에서 달성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이라고 하시던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듯 하였다.

평천혁명사적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속에서 만들어진 한자루한자루의 총이 오늘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는 총대숲으로 무성해졌으며 우리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력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크나큰 흥분을 안고 우리의 로동계급이 자체로 생산한 기관단총과 박격포, 포탄들을 주의깊이 보는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이 차올랐다.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빈터우에서 자립적국방공업의 기초를 마련해주신 우리 수령님은 빛나는 예지와 불면불휴의 로고로 조국의 만년대계의 번영을 담보해주신 불세출의 위인,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새 조국건설시기관 5호실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된 철리가 있었다. 그것은 수령이 위대하면 지난날의 식민지약소국도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국으로 솟구쳐오를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만방에 떨쳐지게 된다는것이였다.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무궁토록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다음 호실로 향하였다.

본사기자 림정호

전 화 의 그 나 날 에 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과학을 중시하시며 과학자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과학자들을 귀중히 여기시며 따뜻이 보살펴주신 우리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준엄하였던 전화의 그 나날에도 수놓아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은 과학자를 한사람한사람을 품들여 키워 당의 두리에 성벽처럼 세워주신 과학자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가렬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고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학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들의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세계《최강》이라 떠벌이는 미제와 맞서싸우면서 지식인들을 보호하는 작전까지 펼친다는것은 사실 힘겨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지식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며 편리한 사업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들을 끊임없이 취해주시였다.

비날론을 발명한 재능있는 과학자로 세상에 알려진 리승기박사도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구원되고 삶을 꽃피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7월 한 일군을 부르시여 공화국남반부에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무사히 안전한 지대로 들어보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특별히 리승기박사의 이름을 지적하시며 그를 꼭 찾아서 데려오라고 당부하시였다.

얼마후 서울에서 그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반가와하시며 그의 신상에 다른 일은 없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리고 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 등에 대하여 알아보시고나서 리승기박사를 가족들과 함께 속히 공화국북반부에로 들어보내도록 하시였다.

그러나 그가 북에 올라오기 바쁘게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세가 매우 긴장하고 당장 해결을 기다리는 복잡한 사업이 수많이 제기되던 그때에도 리승기박사의 신변안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가 몸이 불편한 안해와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데리고 후퇴의 길에 올랐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동차를 타고 큰길을 오기보다 가족들을 탈구지에 태워가지고 산골길로 오는것이 안전상으로나 편리상 더 나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탈구지까지 마련하여 보내주시였다. 그리하여 리승기박사와 그의 가족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승기박사의 연구사업을 위하여 군용화물자동차들과 군인들을 동원하여 수많은 도서와 실험기구, 설비들을 실어오도록 하시였으며 전선에도 생활필수품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때였지만 그를 비롯한 과학자들의 생활을 잘 보장해주도록 각별한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조선의 비날론은 바로 그렇듯 과학자들을 금싸래기와도 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 수령님의 손길에 받들려 세상에 태여났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들을 위하여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고계신다.

그이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고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 량심과 의리를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사랑넘치는 마식령

강산이 흰눈에 덮인 이 계절 마식령스키장에 희열과 랑만의 세계가 펼쳐진다.

눈갈기를 날리며 하얀 비단필같은 스키주로를 나는듯이 미끄러져내리는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

실로 장관이다.

눈가루 날리는 스키장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문화정서생활을 활짝 꽃피우는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에 넘친 모습은 마식령스키장에 깃들어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뜨겁게 되새겨안게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우리 인민에게 무엇을 한가지 주어도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마련하여주시려는것이 우리 원수님의 뜻이다.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눈이 많이 내리고 스키주로를 형성하는데 적합한 지대인 마식령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스키장을 건설할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으시어 해발높이가 천수백m나 되는 스키장정점에까지 오르시며 건설정형을 일일이 료해하시였으며 우리는 하나를 건설해도 통이 크게,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마식령스키장을 세계적인 스키장으로 꾸리도록 하시였다.

마식령스키장건설의 나날 공사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다그쳐 끝낼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주시면서 인민들에게 흠잡을데 없는 훌륭한 스키장을 안겨주시려 우리 원수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를 어이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를 치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온 군인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돌격전으로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스키장건설을 다그쳐 끝내며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력사적인 호소문을 보내시여 남들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낼수 없는 대공사인 마식령스키장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도록 해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이 먼 후날에도 덕을 보며 기쁨과 랑만을 꽃피우게 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이며 사회주의문명국의 상징의 하나인 마식령스키장은 그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태어나게 되였다.

방대한 면적의 천연산지를 개척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구현되고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미감, 문명과 건축의 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시대적요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마식령스키장은 훌륭한 자연생태환경으로부터 스키주로들, 호텔을 비롯한 모든 건축물들에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은정이 깃들어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마식령을 가리켜 사랑의 령이라고 뜨겁게 부르는것이 아니겠는가.

마식령스키장에서는 오늘도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고있다.

수많은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이곳에 찾아와 스키를 타면서 체력도 단련하고 즐겁게 휴식도 하고있다.

마식령스키장의 스키 하나, 삭도 하나, 길 하나에도 인민들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그 옛날 말도 쉬어넘는다고 하여 마식령이라고 불리은 높고 험한 령에 펼쳐진 희열과 랑만의 화폭, 사회주의문명이 꽃펴나는 환희로운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도모르게 마식령의 또 다른 이름을 외워보게 한다. 마식령은 곧 행복의 령이라고.

그렇다. 마식령은 절세위인의 은정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령, 행복의 령이다.

본사기자 김인선

김 영 남 동 지 가

인디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뉴델리

인디아공화국 대통령

람 나트 코빈드각하

나는 인디아공화국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할것과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1월 26일　　평　양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순천시 리수덕청년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그날의 숭고한 뜻 높이 받들어

영광의 자욱어린 평원군 량교리를 찾아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평원군 량교리를 찾아 취재길에 올랐다.

시원하게 뻗은 평양－향산관광도로를 따라 얼마쯤 가니 넓은 들판이 안겨왔다. 량교벌이였다.

량교리는 오석산줄기를 끼고있으며 이 산줄기에는 낮은 산들이 있는데 리의 대부분지역은 구릉지대로 되여있다.

리의 소재지마을은 자그마한 둔덕에 자리잡고있었다.

마을에서 우리와 만난 리의 일군은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농장을 찾아주신지 쉰다섯해가 되는 뜻깊은 해라고 서두를 떼고나서 그날의 이야기를 감명깊게 들려주었다.

주체52(1963)년 3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이 고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량교협동농장의 제6작업반 포전을 찾으시였다.

리에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수지주변의 산들에 나무를 많이 심어 저수지의 풍치를 좋게 하고 산의 흙이 씻겨내려 저수지바닥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산에서 나무를 찍어내는 일이 없도록 할데 대하여서도 간곡히 이르시였다.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을 가슴에 새겨안으며 농장의 연혁소개실을 찾았다.

연혁소개실에 들어서니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금시라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량교협동농장은 벌도 넓고 땅도 좋습니다. 이 일대의 땅에는 린성분이 많으므로 곡식이 잘될것입니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량교리의 토질상태까지도 손금보듯 환히 헤아려보시고 농장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신것이였다.

리의 일군은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원사과에 대해서도 교시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평원사과가 맛이 좋다고 하는데 땅에 린성분이 많으면 사과가 잘되고 맛이 좋다고, 평원군에서는 낮은 둥성이들에 계단식으로 과수밭을 조성하고 사과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사과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도 보장해주어 사과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이어 그는 사과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난 시기 평원군에서 사과나무밭을 많이 조성하여 지금 량교리사람들도 자기 군의 맛좋은 사과를 먹게 되였다고 하면서 해방전의 량교리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나라를 잃었던 그 세월 량교리사람들도 피눈물속에 살았다. 그때의 량교리는 초가집들이 게딱지같이 들어앉았던 락후하기 그지없는 고장이였으며 일제놈들과 지주놈들에게 략탈당하여 가난에 시들리는 농민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농민들의 피눈물이 슴배인 이 고장에 행복의 씨앗을 뿌려주신 후부터 우리 량교리는 사람들의 웃음꽃이 피여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였습니다.》

리의 일군은 그러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지난해에 알곡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제7작업반에 가보자고 하며 우리를 이끌었다.

우리는 작업반장을 만났다. 그는 작업반이 지난해 알곡생산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농사를 지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현지지도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확하고난 작물의 그루터기를 보시고 그루가 굵지 못한것을 보면 지난해에 농사가 잘되지 못한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농사를 잘 지을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량교협동농장에서 밭에 두엄도 많이 내고 저수지의 물을 끌어 밭관개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작업반장은 계속하여 두엄도 많이 내고 당정책의 요구대로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은을 내게 하여 지난해에 례년에 없는 수확을 이룩한데 대하여 농민다운 구수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우리는 관리위원장도 만나게 되였다. 패기가 엿보이는 젊은 일군인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은 농장의 생명선이라고 하면서 농장이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대로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관개공사에 모를 박고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고 하면서 특히 지난해에 가물과의 투쟁을 잘하여 알곡증산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들려주는것이였다.

지난해 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농사를 짓는 과정에 물문제를 풀수 있는 새로운 방도를 찾게 되였다.

오래동안 쓰지 않고있던 어느 한 물길굴을 찾아낸 리일군들은 도와 군의 일군들의 방조속에 물길굴을 통하여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포전들에 단물이 흘러들게 되였고 가물에도 끄떡없이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게 되였다.

리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저수지의 바닥을 파내고 제방을 보강하며 그 주변에 잔디를 입히는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었다.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후날 다시 들리면 달라진 농장을 보게 될것이라고 하는 이 고장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깃들어있는 이 고장의 래일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해마다 풍작을 이룩하는 다수확농장으로, 사회주의문명이 활짝 꽃펴나는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자랑많은 고장으로 전변될 량교리의 희망찬 래일을.

본사기자 최유일

삼지연군을 로동당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살기 좋은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전변시키자

216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빈틈없는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216사단 현장지휘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원대한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새것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데서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는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백두산지구에 혁명적인 총공세의 거세찬 숨결이 높뛰고있다.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봇나무들이 들어선 창일의 옛 전구에 흰눈은 끝없이 내려쌓이고 박달나무마저 얼어터지는 강추위는 계속되고있다. 그러나 당의 높은 뜻 받들고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로동당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현대적이며 살기 좋은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더 잘 꾸려가려는 216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기세는 새해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높아가고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 불같은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사단현장지휘부에서는 비상히 앙양된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혁명적열의에 맞게 올해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진입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쳐 힘있게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삼지연군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앞으로의 공사방향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곳, 남들이 흉내조차 낼수 없는 곳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기후관계로 건설기일이 짧은 백두산지구에서 엄혹한 겨울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준비사업을 드틴다면 본격적인 건설시기에 일대 섬멸전을 벌릴수 없으며 완공의 날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일군들은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현장지휘부의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에 따라 삼지연군읍지구건설을 위한 준비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려단, 련대, 대대들간에 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단위들마다에서 부사블로크생산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과 기발한 혁신안들이 련이어 나오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모든 분과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단위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을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한 방도를 찾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고있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의 작전과 지휘밑에 부사와 모래, 흙석, 막돌을 채취하여 공사장가까이에 접근시키고 운수수단, 설비, 기공구들을 정비보강하며 이미 리용하였던 자재를 회수하는 등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자동차, 렬차를 통한 물동수송에 힘을 넣고있다.

수송이자 곧 건설이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혁혁한 위훈을 떨친 백두산영웅청년려단 운수기동련대를 주력으로 하고 각 려단, 련대들의 모든 운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역들에 물동수송렬차가 들어서는족족 제때에 부리워 전투단위들에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혜산—삼지연철길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른데 따라 역들과 보조건물들의 모든 요소요소를 더 완벽하게 꾸리고 내외부시공을 더욱 깐깐히 진행하고있다.

중요하게는 철도성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삼지연군꾸리기에 필요한 물동을 제때에 수송하기 위해 겨울철기간 렬차시운전운행을 통한 강도시험과 안전성검토를 진행하는 동시에 다음단계 철길공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의 일군들은 삼지연못가로부터 무포, 대홍단,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유평, 연사지구들을 여러차례 현지답사하면서 다음단계 철길공사가 진행될 지역들에 대한 지형조사를 진행하였다.

백두의 혹한속에서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홍기배비, 신심드높이 부사블로크, 철길자갈생산을 다그치고있다.

216사단의 려단, 련대, 대대들마다에서 기술실무강습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앞으로 대상건설이 시작되면 최상의 속도와 함께 최상의 질을 보장할수 있게 돌격대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기술력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부사를 비롯한 백두산지구의 원료를 가지고 마감건재를 만들어쓰는것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사업도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얼마전 현장지휘부에서는 삼지연군꾸리기 제1단계 전투총화가 진행되였다.

총화에서는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에 주라적방향을 정한데 따라 설계를 앞세우며 부사블로크, 부사타일, 목재가공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겨울철기간 공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가 일단 공격명령이 내리면 일시에 전투에 진입할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사단의 전체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삼지연군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백두전역에 전개한 건재생산기지들에서 증산의 숨결이 높뛰는 가운데 물동을 만적재한 자동차, 렬차들이 꼬리를 물며 령을 넘고있다.

백두대지에 사나운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보온덧집들마다에서 생산한 부사블로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지고있다. 려단, 련대, 대대들마다에 꾸려진 수리기지들에서 자력갱생의 마치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단련된 백두산영웅청년려단과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618건설려단, 922건설려단, 량강도려단, 914지휘부, 전력, 체신련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배짱을 안고 백두의 혁명정신, 불가능을 모르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성과를 계속 확대하며 승전포성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량강도려단에서

겨울철기간 216사단 량강도려단 지휘부일군들의 사업을 놓고보면 주목되는 점들이 있다.

다른 단위들에 비해 려단의 기계수단과 로력은 적다.

도에서 삼지연군꾸리기에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총동원하는데 맞게 려단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며 전진하고있다.

려단에서는 방대한 량의 부사블로크를 생산하여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건설에서 큰 몫을 해제꼈으며 오늘은 건재생산에서 사단적으로 앞선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려단지휘부일군들은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간다는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북방의 추운 겨울철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찾기 위하여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였다.

방대한 공사를 앞두고 진행되는 부사블로크생산과정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겨울에 부사블로크를 생산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열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일군들은 시공지도를 하면서 열손실을 막기 위하여 건재생산기지의 층고를 될수록 낮추었다. 밤에는 지붕우에 풀을 쳐 열손실을 막았고 낮에는 태양열이 고스란히 실내에 흡수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재생산기지에 난로나 온돌을 놓았지만 려단에서는 방열관을 설치하였다. 지난 시기의 경험을 놓고보면 방열관을 놓는것이 온도를 높이는데 좋았고 연료소비가 적었기때문이였다.

다른 단위들에서 부사블로크를 생산하는족족 쌓을수 있게 건재생산기지안에 여러층의 턱대를 만들어놓았지만 량강도려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실내의 공간을 넓게 하여 그속에서 부사블로크를 찍어 양생하였다. 이렇게 하면 열이 전반적으로 퍼져 많은 부사블로크를 경화시킬수 있으며 돌격대원들이 일하기도 편리하였다.

삼지연군은 겨울에 대기온도가 몹시 차므로 밖에서 물을 퍼다가 그대로 쓰으면 혼합물에 살얼음이 질 정도였다.

려단지휘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생장안에 우물을 파고 어느 정도 찬 기운이 가셔진 물을 리용하도록 하였다. 사소한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혼합물의 질을 보장하는데서 효과적이였다.

삼지연군 신무성지구에 많이 매장되어있는 부사를 미장용건재원료로 쓸수 있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려단의 일군들은 즉시에 부사를 가져다가 해당 연구기관에서 분석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는 좋았다. 이 부사는 블로크생산에 아주 적합한 재료였다.

부사를 가져다가 될수록 알갱이가 작게 부스러뜨렸다. 이렇게 하면 부사블로크를 생산할 때 부착성이 높아져 질이 확고히 담보된다.

어떻게 하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는가.

이렇게 사고하고 실천하면서 려단참모부일군들은 첨가제를 자체로 생산도입하여 겨울철부사블로크경화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가을철에는 개울물줄기를 돌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모래를 파내여 잘 말리워놓았다가 리용하였다.

려단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안들과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몇개의 선행단위들에서 시험해보고 성과가 확증된 다음 보여주기를 하여 모든 대대들에 일반화하였다.

량강도려단 지휘부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자기 힘을 믿고 부단히 사색하고 실천하면 길은 열리기마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현지 보도

더 빨리, 더 질적으로

백두산영웅청년려단 성, 중앙기관대대에서

여기는 216사단 백두산영웅청년려단 성, 중앙기관대대 부사블로크생산전투장이다.

아직은 백두밀림에 어둠이 덮인 이른새벽이지만 부사블로크생산현장은 세차게 들끓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천리마대고조의 높은 진군속도와 함께 천년책임, 만년보증과 같은 튼튼한 질적담보가 더없이 귀중합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하여 발전소를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훌륭히 완공한 남다른 자랑을 간직하고 있는 성, 중앙기관대대 녀성소대 처녀돌격대원들이다.

전투장에는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라는 구호와 함께 《천년책임, 만년보증》이라는 글발이 뚜렷이 안겨온다.

우릉우릉, 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는 속에 하얀 부사가 벨트콘베아에 실려온다.

부사에 한점의 흙이라도 섞이지 않았는가 살펴보는 처녀돌격대원인 김태철동무의 두눈은 별처럼 초롱초롱 빛난다.

가슴에 품고다니는 자그마한 수첩에 적은 부사블로크생산의 기술적요구를 곰곰히 되새겨보며 혼합기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다루어가는 처녀돌격대원 최미영, 리윤복동무들의 얼굴에는 어느덧 땀방울이 돋는다.

단발머리를 날리며 다짐기를 억세게 틀어쥔 오은경, 리수련동무들은 또 얼마나 미더운가.

어느새 큼직큼직한 부사블로크들이 성형기에서 찍혀지자 돌격대원들은 팔소매를 걷어올리며 성큼 다가선다.

녀성소대 소대장 김은주동무가 한손을 가볍게 쳐든다.

《질은 곧 속도랍니다. 블로크가 잘 다져졌는지 다시한번 보자요.》

질은 곧 속도!

그렇다.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앞두고 무한정 요구되는것은 부사블로크이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전진속도는 그만큼 떠지게 될것이다.

삼지연군에 일떠설 건축물에 한점의 티가 있을세라 부사블로크 한장한장에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려는 처녀돌격대원들의 마음을 담아 벨트콘베아, 혼합기, 다짐기들의 거세찬 동음은 한겨울 새벽의 고요를 깨친다.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지니고

922건설려단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삼지연군 포태지구에 전개한 216사단 922건설려단을 찾았다.

이깔숲이 펼쳐진 포태천기슭을 따라 규모가 있게 들어앉은 귀틀식병실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 단위의 전투력에 대하여 첫 순간에 알수 있었다.

아담한 병실들과 차고, 수리기지들, 건재생산기지들이 규모있게 꾸려져있고 이르는 곳마다에 영예게시판, 속보판이 게시되어있었다.

우리는 먼저 라선시련대를 찾았다.

밤새껏 내린 눈을 쳐낸 병실뜨락에는 땔나무들이 규모있게 쌓여있었는데 그것만 보아도 련대돌격대원들이 생활을 얼마나 깐지게 하고있는가 하는것이 한눈에 안겨왔다.

성, 중앙기관 1련대 수매량정성대대, 평양시련대 평천구역대대, 황해남도련대 해주시대대들에는 세목장과 한증칸, 목욕실들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 돌격대원들이 추운 겨울에도 불편없이 생활하고있었다.

그 어느 단위를 돌아보아도 항일유격대원들의 알뜰하고 깐진 살림살이기풍, 혁명적이며 랑만에 넘친 생활기풍이 그대로 엿보였다.

항일유격대의 투쟁기풍, 생활기풍대로 살며 일하는 922건설려단이 앞으로 삼지연군꾸리기에서 어떤 몫을 담당수행하겠는가 하는것이 어렵지 않게 짐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을 로동당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현대적이며 살기 좋은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전변시키려는 당의 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하려는 지휘관들의 열의는 비상히 높았다.

얼마 안되는 사이에 이들이 해놓은 일이 그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려단이 세포등판에서 백두산으로 온지는 두달 남짓하지만 서창순려단장은 앞으로 건설하게 될 삼지연군 포태지구의 농장들의 이름을 촌급으로 내리외우며 이곳 실태를 손금보듯 알고있었다.

려단에서는 200여동의 병실들과 보조건물들을 건설하고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지대정리를 도와주었으며 혜산—삼지연철길건설장에 수천㎥의 철길자갈을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뿐만아니라 세포지구에 건설한 건축물들의 3배에 달하는 방대한 공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큰 규모의 골재장조성과 함께 3 000t능력의 싸이로를 덩실하게 일떠세웠다.

집단적경쟁열풍이 고조되는 가운데 모든 련대들에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북방의 사나운 강추위를 물리치며 건재생산에 리용하게 될 수만㎥의 부사, 수천㎥의 모래, 막돌채취를 다그치고있다.

려단에서는 북방의 찬바람과 열손실을 막을수 있는 보온덧집을 짓고 휘틀조립, 혼합물타입 등 작업공정간 맞물림이 빈틈없는 생산공정을 꾸려 20여만장의 부사블로크를 생산함으로써 216사단적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었다.

우리는 확신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떨쳐가리라는것을!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항일유격대의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본받아
—922건설려단 라선시련대에서—

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려단 운수기동련대에서—

당의 양어정책관철을 위한 도들사이의 주체106(2017)년

사회주의경쟁총화모임 진행

당의 양어정책관철을 위한 도들사이의 주체106(2017)년 사회주의경쟁총화모임이 25일 순천메기공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관계부문, 각 도당, 정권기관, 직맹위원회일군들, 경쟁참가단위 일군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한우활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그는 지난해 양어부문에서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으로 당의 양어정책관철을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물고기생산을 늘이고 양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양어를 활성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과업을 높이 받들고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쟁순위가 발표되고 사회주의경쟁순회우승기가 평안남도에 수여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당의 양어정책을 결사관철함으로써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보다 큰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주체107(2018)년 사회주의경쟁요강이 발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산판에 나래치는 혁신의 기상

덕천갱목생산사업소 유승작업소에서

여기는 동발나무생산전투로 들끓는 덕천갱목생산사업소 유승작업소 채벌장이다.

작업현장에 나붙은 구호들과 표어들, 세차게 펄럭이는 붉은기들, 산길을 기세좋게 달리며 동발나무를 끌어내리는 뜨락또르들…

동발나무생산전투에 여념이 없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얼굴마다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 동발나무생산에서 자랑찬 성과를 안아오려는 드높은 열의가 어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공격좌지로 향하는 사수마냥 기계톱을 틀어쥔 리명성, 최영일동무를 비롯한 나무베기공들이 창공을 치뚫으며 키높이 자란 나무밑동에 기계톱을 바싹 들이댄다.

사르릉, 사르릉—

밀대공들이 나무넘길 자리를 가늠해본 다음 밀대를 들이댄다. 때를 같이하여 나무가 허공에 원을 그으며 넘어진다.

《또 한대 넘어간다.》

여기저기서 숭벽내기로 들려오는 나무베기공들의 통쾌한 웨침소리에 뒤이어 《우지끈, 쾅!》 하는 소리가 온 산판을 들었다놓는다. 벌목공들이 더욱 기세를 올린다. 한손에 기계톱을 쥐고 땀을 씻으며 동발나무생산전투를 지휘하는 김재수지배인과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는 최명일초급당위원장의 모습도 보인다.

아지따기공들이 순간이라도 지체될세라 날렵한 동작으로 넘어진 나무들을 깨끈하게 다듬는다. 이어 나무모으기공들이 동발나무를 모아 삭도에 매달자 신호수 김충일동무가 삭도운전공 차영민동무를 바라보며 마치 화력지휘관이나 된듯 높이 쳐들었던 신호기를 힘있게 내리운다. 순간 삭도줄을 타고 동발나무가 산아래로 쏜살같이 내려간다. 잠간사이에 나무터에는 동발나무들이 무둑히 쌓인다.

《지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한대의 동발나무라도 더 생산하여 석탄전선에 보내주려는 우리 작업소 로동자들의 증산열의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해 동발나무생산계획도 문제없습니다.》

우리에게 소장 리선일동무가 걸으로 다가와 자랑스럽게 말한다.

산판이에 나무터도 벌써 끓는다. 사이나르기에 드바른 뜨락또르들, 동발나무를 가득 싣고 기운차게 내닫는 자동차들…

상차공들도 쉴새없이 일손을 놀린다. 산판에 나래치는 정사관철의 기상을 보여주는 《집단적혁신의 하루》, 《일 동발나무생산계획 120%로 완수》라는 힘있는 글발들이 전투속보판에 나붙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판의 열띤 분위기는 더욱 고조를 이룬다.

본사기자 정경철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생산경험

효률적인 벼모판차단재생산방법

새해농사차비로 들끓는 숙천군 광천농장에 가면 이채로운 풍경이 눈길을 끈다. 《신양2》호복합균에 의한 광조류발효퇴비더미들우에 쌓여있는 진거름영양벼겨무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같은 열의와 남다른 일본새를 보여주는 이 벼모판차단재무지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였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농사에서 기어이 풍작을 부를 높은 목표밑에 사색을 거듭하던 농장일군들은 제11작업반에서 벼모판차단재로 리용한 영양벼겨생산방법을 널리 일반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이 작업반에서는 풍요한 가을은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벼모판차단재로 일반벼겨대신 진거름영양벼겨를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큰 덕을 보았었다. 반장 리동철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진거름과 물을 1 대 5의 비률로 섞어 끓인 용액에 벼겨를 넣고 만든 이 차단재는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우선 모판의 보온과 영양조건이 개선되어 종전보다 싹트는 속도가 빨라지고 싹트는률도 높아졌다. 모의 키가 더 커지고 잎수와 아지수도 늘어났으며 벼모마름병발생률이 10%나 줄어들었다.

이뿐이 아니다. 차단재생산과정에 벼선충들이 제거됨으로써 이 병으로 인하여 수확고가 감소되던 현상이 극복되였다. 결국 작업반에서는 튼튼한 모를 길러내여 전해보다 정보당 0.8−1t의 알곡을 증수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수 있었다.

이 작업반의 경험을 놓고 일군들이 다시금 새겨안은것은 결코 실무적인 방법상의 문제만이 아니였다.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늘 머리를 쓰며 깨심을 들여 실천해나갈 때 같은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다수확을 거둘수 있다는 진리였다.

이런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선 일군들은 제11작업반의 경험을 온 농장에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벼모판차단재인 영양벼겨의 우월성을 구체적인 수자자료를 안받침하여 널리 해설선전하는 한편 원료확보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온 농장이 떨쳐나서 올해농사에 필요한 벼겨와 진거름 등 영양벼겨생산원료를 하나하나 확보해나갔다. 모든 준비가 빈틈없이 갖추어지자 농장일군들은 작업반별로 차단재를 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었다.

농장의 차단재생산에서 주목되는것이 있다.

땔감을 쓰지 않으면서도 영양벼겨를 후숙시킬수 있는 방법을 받아들여 온 농장에 일반화하고 있는것이다.

차단재를 질적으로 잘 만들자면 끓인 진거름물에 벼겨를 잘 섞고 또 끓인것을 50∼60℃ 정도의 온도에서 60일정도 후숙시켜야 하는데 온도를 보장해주는것이 문제였다.

농장의 초급일군들 누구나 로력과 땔감을 절약하면서도 차단재를 잘 만들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다. 하자고 결심하고 달라붙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 피타는 사색은 새 착상을 낳았다. 일군들은 한창 생산중에 있는 광조류발효퇴비의 온도가 50℃이상 된다는것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농장일군들은 광조류발효퇴비더미우에 비닐에 싼 차단재무지를 올려놓게 하였다. 그리고 잘 덮어주어 발효퇴비와 진거름영양벼겨가 동시에 발효되게 하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였다. 품을 적게 들이면서도 질적으로 영양벼겨를 생산할수 있는 효률적인 방법이였다.

즉시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 이 방법이 도입되였다.

지금 농장의 어느 작업반에 가보아도 광조류발효퇴비더미우에서 잘 후숙되어가고있는 벼모판차단재무지를 볼수 있다.

예년에 없이 별쩐 1월의 강추위속에서도 풍요한 가을을 호소하게 그려주며 질좋게 생산되고 있는 벼모판차단재무지들은 무엇을 깨우쳐주는가.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 집행을 위해 늘 사색하며 깨심을 들일 때 다수확의 열쇠를 찾아낼수 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장은영

우리 당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인 참된 당일군

강남군당위원회 위원장이였던 조춘길동지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당력사의 갈피에는 령도자를 받들어 지울수 없는 인생의 자욱을 남긴 수많은 충신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다.

뜻밖에 우리곁을 떠난 강남군당위원회 위원장이였던 조춘길동지도 많은 일을 한 일군으로 우리 당의 품속에 영생하는 성실하고 참된 당일군이다.

우리는 뚜렷한 생의 자욱을 남긴 조춘길 전 강남군당위원장의 지나간 인생의 갈피를 더듬으며 참된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인생은 무엇으로 어떻게 빛내여야 하는가를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된다.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조춘길군당위원장의 일생에서 특징적인것은 그가 당에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서 한치의 드팀과 양보도 모르는 철저한 옹호자, 관철자였다는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당의 크나큰 신임과 믿음속에 강남군당위원회 책임비서(당시)사업을 맡게 된 조춘길군당위원장은 깊은 사색에 잠기였다.

(내가 과연 이 무거운 중임을 꽤 감당해낼수 있을가. …)

받아안은 믿음을 생각할수록 저도모르게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며 창가에 다가선 그의 머리속에는 지나간 인생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조춘길군당위원장의 부모들은 한생 땅과 함께 살아온 평범한 농민이였다. 그는 아지랑이 피여나는 봄철이면 연장을 메고 밭갈이나가고 가을이면 이슬을 차고 벼가을나가는 성실하고 근면한 부모들의 모습을 천진한 눈동자에 새기며 어린시절부터 구수한 흙냄새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그래서인지 군사복무를 하고 대학을 다닐 때에도, 나서자란 고향땅에서 첫 당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속일줄 모르는 땅과 같이 고지식하고 사치와 허영을 모르며 오직 자기를 키워준 당의 은덕에 뼈심을 바쳐 보답할 한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당에서는 이런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지닌 그를 젊음 길을 이끌어 나라의 200분의 1을 책임진 군당책임비서(당시)로까지 내세워주었다. …

당의 믿음과 사랑을 가슴저리게 새길수록 조춘길군당위원장은 한생을 강남땅의 참된 주인으로 살며 일할 굳은 각오를 다지였다. 그는 군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학습하는것으로부터 첫 사업을 시작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나날에 강남땅을 찾아오시여 군이 나아갈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춘길군당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군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정보당 알곡과 남새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리들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내밀었다.

여기서 그가 제일 중시한것이 첫째도 둘째도 농사였다.

몇해전 강남군이 심한 가물피해를 받았을 때의 일이다.

군안의 여러 농장들을 다니며 물이 없어 터갈라진 논들과 먼지만 풀썩이는 밭들을 바라보는 조춘길군당위원장의 가슴은 몹시 쓰리였다. 그는 심한 자책감을 안고 군자체의 힘으로 능력이 큰 양수장들을 건설하고 전기공사도 진행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웠다.

칼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여러개의 새 양수장을 건설하고 철탑을 세우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날씨가 좀 풀린 다음에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조춘길군당위원장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우리가 미리 작전하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지난해와 같은 가물피해는 없었을것입니다. 다시는 뼈저린 후회가 없도록 힘이 들더라도 씨뿌리기철전으로 계획한 일들을 와닥닥 해제낍시다.》

그의 호소에 군안의 일군들이 모두 호응해나섰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양수장건설장마다 커다란 덧집들이 생겨나고 강추위속에서도 공사는 힘있게 추진되였다. 군당위원장은 양수장건설과 전기공사를 동시에 내밀었다. 그는 가정에서 성의껏 준비한 후방물자를 가지고 철탑생산으로 들끓는 기업소에 찾아가 로동자들속에서 힘있는 정치사업을 들이대며 연 3일동안이나 침식도 잊고 결사전을 벌리였고 한주일동안에 군안의 돌격대원들과 함께 연띵을 짜고 여러개의 철탑을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또한 계획했던 양수장건설도 한달동안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껴 강남땅이 물걱정을 모르고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서 조춘길군당위원장이 보여준 일본새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걸음을 걸어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늘 모든 농장들의 정보당 수확고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겠는가를 고심하던 군당위원장은 군자체의 힘으로 능력이 큰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를 건설할 결심을 굳히였다. 그리하여 시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속에 군에서는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를 일떠세우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숙성과 발효, 건조와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된 생산기지를 꾸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다. 건설 전기간 조춘길군당위원장은 그야말로 불사신같이 살며 일하였다.

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 군당위원장과 맞들이짝패인 한 돌격대원이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다.

《군당위원장동지야 책임일군인데 과업을 주고 총화만 지어주면 되지 우리와 똑같이 일을 꼭 해야 합니까?》

무람없이 물어보는 돌격대원을 정깊게 바라보던 조춘길군당위원장이 이렇게 말하였다.

《당의 방침관철에서는 동무나 나나 다 명령받은 병사요. 자, 돌격대원동지! 우리 쉬면서 한대 피우기요.》

익살쉬인 롱담도 잘하고 누구나 간격없이 어울리기 좋아하는 군당위원장이 휴식을 선포하자 그의 주위에 돌격대원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그는 자기를 둘러싼 돌격대원들에게 담배를 한대씩 나누어주고 지금 건설하는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가 완공되면 강남땅의 논과 밭이 어떻게 풍요한 벌판으로 전변되는가를 손세를 써가며 구수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런 격식없는 정치사업과 이신작칙이 돌격대원들에게 기적창조의 나래를 달아주었고 온 군이 달라붙어 애쓴 보람이 있어 강남땅의 보배공장으로 불리우는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가 한해사이에 훌륭히 일떠섰다.

조춘길군당위원장은 거듭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짧은 기간에 군안의 알곡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언제인가 시에서 조직한 회의에 가던 조춘길군당위원장은 당곡리의 어느 한 포전에서 벼포기들이 병든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현상이 토양에 내재하고있는 균들에 의해 생기는 병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큰 가책을 받았다. 농사에서는 막히는데가 없다고 하는 자기가 아직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킴에 대한 당의 의도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그는 사무실과 차안에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짬만 있으면 책을 보았다. 그리고 우량품종의 종자와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고있는 단위들을 빠짐없이 찾아다니며 경험을 습득하고 군안의 농장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내밀었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선진과학기술과 영농지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

그는 이른콘모를 받아들여 정보당 높은 수확고를 낸 장교리의 경험을 온 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미는것과 함께 시험적으로 재배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강냉이무지재배와 키낮은 작물을 배합한 새 영농방법을 모든 농장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업도 자기가 직접 작전하고 드세게 내밀었다. 이 과정에 강남군은 새로 건설한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에서 생산한 질좋은 유기질비료로 남새밭의 지력을 높여 김장무우생산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앞선 영농방법을 도입하여 알곡소출을 높임으로써 여러차례에 걸쳐 당에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참된 인생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오늘도 강남군사람들은 조춘길군당위원장을 가리켜 일욕심이 많고 고지식하며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당일군, 강남땅의 흙냄새가 푹 배인 잊지 않은 당일군이라고 뜨겁게 추억하고 있다.

강남땅의 흙냄새가 푹 배인 잊지 않은 당일군!

대중의 이 평가속에 조춘길군당위원장의 전생애가 비껴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리만치 조춘길군당위원장은 강남군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대로 인민들의 실장속에서 살기 좋은 군으로 꾸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원래 강남군은 비가 조금 내려도 신발바닥에 뻘건 진흙이 달라붙어 농사조건이 불리하고 경제토대가 미약한 군이였다. 조춘길군당위원장은 군당위원장으로 사업하는 전기간 어떻게 하면 강남군도 온 나라가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놓겠는가를 늘 고심하며 이 사업에 자기의 온넋을 다 바치였다. 그는 읍지구와 모든 농장마을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관하게 틀어쥐고 완강하게 실천해왔다.

읍지구를 꾸릴 때 있은 일이다.

그는 아빠트라고는 불과 몇동밖에 없고 단층들만 있는 읍지구를 대담하게 일신할 통이 큰 목표를 세웠다. 그의 발기로 군당위원회의 부장들이 한개 아빠트씩 맡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어느날 건설장을 돌아보던 그는 어느 한 부장이 맡은 봉사건물을 돌아보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 인민들이 살 아빠트를 건설해야 할것 같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읍지구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인민들이 살 집을 건설합시다.》

이것이 그가 내세운 사업과 실천의 기준이였다.

이렇게 되여 군에서는 읍지구에 많은 소층아빠트를 건설하여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풀어주었고 군문화회관과 피복공장, 고기상점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과 공원건설, 가로등설치를 비롯한 읍꾸리기를 하나하나 완성하여 읍지구의 면모를 짧은 기간에 일신시켰다. 또한 군당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2개의 수원지를 새로 건설하고 상수도관공사를 진행하여 읍지구 주민들의 먹는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고 모든 리들을 사회주의선경마을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군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몇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영진리와 문암리, 당곡리와 마정리를 비롯한 리들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회주의선경마을들로 천지개벽되였고 군안의 모든 학교들과 병원들,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교육학적, 보건의학적요구에 맞게 일신되였다.

강남군사람들은 군당위원장을 두고 이야기할 때 그는 번번지리는 남의것보다 소박해도 자기의것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일군이였다고 말하군 한다.

사업상용무로 군에 오는 사람들도 조춘길군당위원장이 《이 술이 우리가 빚은 곡주요.》, 《이 장이 우리 군식료공장에서 만든 메주장이요.》 하면서 자랑하던 모습을 잊을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조춘길군당위원장은 자기것을 끔찍이 사랑하는 강남땅의 참된 주인이였다.

몇해전 어느날 군안의 일군들이 모인 협의회에서 조춘길군당위원장이 이렇게 말하였다.

《군식료공장현대화를 실현하여 도시부럽지 않게 우리 군인민들에게 공급할 기초식품과 탁아소, 유치원은 물론 읍지구 학생들에게 공급할 콩우유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합시다.》

이렇게 되어 군식료공장에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된 기초식품과 콩우유생산설비가 일식으로 갖추어졌고 생산이 정상화되여 군안의 인민들과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조춘길군당위원장은 일군들을 무척 아끼고 내세워주며 생활에서는 소박하고 뜨거운 인정미가 있는 일군이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추억하고 있다.

언제인가 군안의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춘길군당위원장이 한 일군을 놓고 세게 다불러댄적이 있었다. 평시에는 말이 적고 성격이 부드러운 그였지만 그날만은 어성을 높이였다. 그만큼 그 일군이 범한 과오가 엄중했고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 모두가 격분하여 자격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정도로 심각했다.

회의가 끝난 후 그의 해임문제를 토의하려 한 일군이 군당위원장사무실에 들어갔다. 그때 조춘길군당위원장은 비내리는 창밖을 오래도록 내다보다가 잠긴 어조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일 잘하던 동무가 왜 그런 엄청난짓을 했는지 리해가 안가오. 그 동무의 과오이자 내 과오요. 그가 실천속에서 과오를 씻고 일을 잘하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줍시다.》

순간 그 일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떻게 그 일군의 과오가 자신의 과오로 되는가. …)

이런 일은 비단 과오를 범한 그 일군에게서만 있은 일이 아니였다.

조춘길군당위원장은 일단 문제가 있는 일군은 호되게 닦아세우고도 뒤에 돌아서서는 오히려 자신이 더 괴로와했으며 과오를 씻도록 진심으로 이끌어주고 성과가 있을 때에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적극 내세워주었다. 그는 오랜 기간 많은 일군들을 실천속에서 쟁쟁한 일군들로 키워냈다. 청년양어장건설을 청년들에게 대담하게 맡겨주고 완공한것을 비롯하여 젊은 일군들을 믿고 어렵고 힘든 과업을 주어 정형하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에 최소려나는 일군들로 키운 이야기들과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생활이 어려운 세대들을 쉬임없이 찾아다니며 극진히 돌봐준 가지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여기에 다 적지 못한다.

군당위원장은 언제 한번 병원에 입원한적이 없었다. 심장병과 고질적인 속탈로 고생하는 그에게 안해와 자식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을것을 여러번 간절히 요청하군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혼연히 이렇게 말하군 했다.

《내 이래뵈도 젊었을 때는 날파람있는 축구선수였다. 내 걱정은 말아라. 이제 우리 군이 잘살 때 며칠동안 가족휴양이나 가자꾸나.》

그가 축구를 했다는 말은 사실이였다. 그는 군사복무와 대학공부를 할 때도 응원자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이름난 축구선수였다. 하지만 그가 가족들과 한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지키지 못했다. 강남군의 모내기가 끝나야 평양시의 모내기가 끝난다는 말이 돌만치 강남군은 시적으로 논과 밭이 제일 많고 시민들의 김장용남새공급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사정으로 조춘길군당위원장은 일년내내 휴식이 따로 없이 전투에서 전투로 이어지는 드바쁜 속에서 누구보다 분주했다. 그는 언제봐야 수수한 옷차림에 로동화를 신고 제일먼저 아침이슬을 맞으며 군안의 구석진 논과 밭까지 일일이 다 돌아보는것이 하나의 일과였고 밤늦게까지 크고작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쉬임없이 일하였다.

그는 점심시간도 아까와 없어지면 교당을 제 집을 곁에 두고도 늘 군당위원회 경리과식당에서 군당일군들과 국수를 맞나게 들었고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일할 때가 많았다.

이처럼 한생을 불같이 산 그는 생의 마지막순간에 흐려지는 의식을 가다듬으며 혼신의 힘을 모아 이런 부탁을 남겼다.

《군인민위원장동무, …나대신 동무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나가있는 돌격대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지원물자도 전달하고 맡은 대상건설을 제일먼저 끝내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고드려…》

조춘길군당위원장은 이렇게 우리곁을 떠나갔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조춘길군당위원장이 뜻밖의 일로 순직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많은 일을 한 좋은 동무를 잃었다고, 그가 우리곁을 떠났지만 높이 평가해주어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면서 유가족에게 은정깊은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우리 당의 품속에 영생하는 혁명전사, 그는 비록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지만 새해진군길에 떨쳐나선 온 나라 천만군민에게 인생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며 전진하는 대오와 영원히 함께 있다.

특파기자 최 수 복

명작창작의 열망안고

만수대창작사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가슴에 새겨안은 만수대창작사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신심드높이 명작창작을 위한 진군길에 떨쳐나섰다.

출판화창작단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반영한 선전화작품창작에 력량을 총집중하였다.

하여 기동성과 호소성, 선동성이 구현된 선전화작품들을 빠른 시일에 창작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인민적총공세의 열풍을 더해주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전면적개화기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출판화창작단뿐만아니라 모든 창작단들이 명작창작열풍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명작창작의 비결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온넋으로 절감한데 기초하여 창작적열정을 총폭발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한 창작사의 창작가들은 벅찬 현실에 달려나가고있다.

만수대창작사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굴지의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이다.

창작사에서는 지난해에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형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조하고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주체미술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하기 위한 명작창작전투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창작사에서는 백두산지구와 강원도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전투장들에 창작가들을 파견하여 그들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길뿐아니라 백두의 칼바람도 맞아보고 벅찬 시대정신도 받아안을수 있게 현실체험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창작가들의 앙양된 열의는 그대로 창작성과로 이어졌다.

창작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에 200여점의 작품들을 출품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풍요한 가을날 농촌의 탈곡장을 찾으시여 수첩과 만년필을 드시고 녀성선동원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 유화 《농촌선동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어린이들을 형상한 조선화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다 창작가들의 진지한 현실체험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 작품들이다.

함박눈이 펑펑 내리는 날 평양애육원에 펼쳐진 원아들의 생활의 한 토막을 소재로 하고있는 조선화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활짝 꽃펴나는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시대적의의가 큰 작품으로 되고있다. 원아들이 한쪽에서는 눈덩이를 굴리고 다른쪽에서는 펑박질하던 총각애들이 눈판에 넘어져서도 서로 부둥켜안고 웃으며 돌아가는 광경을 표시한 작품은 명랑하면서도 씩씩하게 자라는 원아들의 동심세계를 통하여 작품의 주제사상을 명백하게 밝히고있다.

격동적인 현실에서 시대의 본질을 파악하고 높은 예술적기교로 형상해나가는 전투적이며 진취적인 창작태도를 지닌 창작가들이였기에 려명거리건설전투를 폭넓게 체험한데 기초하여 초고층살림집들이 해빛을 받아 건축미를 한껏 자랑하고 길가에 꽃바다가 펼쳐진 완공된 려명거리를 형상한 유화 《만리마의 고향》을 창작할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강원땅에 나간 창작가들은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북변의 수산사업소에 달려나간 창작가는 어로공들과 함께 어로전투를 벌리며 작품의 종자도 탐구하고 인물형상도 완성하였다.

만수대창작사에서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크다.

그러나 창작사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새로운 명작폭포를 안아오기 위한 총공세에 떨쳐나섰다.

우리 당의 문예사상과 정책으로 만장약하고 혁명적인 창작창조활동을 벌려나가는 이런 미더운 창조집단이 있기에 우리의 주체미술은 뜻깊은 올해에 더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차 수

제33차 국가과학원 과학기술축전 진행

제33차 국가과학원 과학기술축전이 24일부터 26일까지 국가과학원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국가과학원산하 분원, 연구소, 리과대학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들이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수백건의 성과자료들이 출품되였다.

기초과학, 자동화, 정보, 생물공학, 물리나노부문 등 10여개 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축전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과학연구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평가하였다.

축전에서는 《절삭가공에 의한 인공수정체생산》, 《저품위망간토에 의한 망간정광생산공정》, 《대용량수력발전기려자, 조속기조종체계의 현대화》, 《100kW풍력발전기 계통병렬변환기》, 《설계도안그림보존처리방법》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되여 실질적으로 은을 내고있는 성과자료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6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축전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남측 선발대

우리측 지역 방문

【평양 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지난 17일에 진행된 북남실무회담합의에 따라 리주태 통일부 국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남측 선발대가 2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였다.

남측 선발대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두고 북남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과 북남합동문화행사가 진행되게 될 마식령스키장과 금강산지구 등을 돌아보았다.

조선과 이란정부사이의 2018년-2021년 량해문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 예술, 교육, 대중보도, 체육 및 청년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2018년-2021년 량해문이 24일 이란의 테헤란에서 조인되였다.

강삼현 이란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아바스 카예초아르 이란이슬람교문화련락기구 국제사업담당 부위원장이 량해문에 각각 수표하였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28일(일요일) 오전 압록강국방체육단에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사이의 활쏘기대항경기가 벌어진다.

한편 광복거리에서는 4.25체육단, 압록강체육단, 평양체육단을 비롯한 12개 단체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마라손 성인급과 청년급경기가 있게 된다.

새로 개건된 강서구역문화회관을 돌아보고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선 보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며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들의 마음속고충과 생활상애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훌륭하게 개건된 강서구역문화회관을 찾았다.

강서구역의 한 일군인 홍형진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회관앞마당에 도착하니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흥성이고있었다.

정말이지 회관은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일신되여있었다.

색철판을 입힌 지붕이며 아크릴계칠감으로 새롭게 단장한 벽체들, 화강석계단들, 번듯하게 포장된 드넓은 교양마당, 휴식터들이 꾸려진 주변공원…

회관내부 역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꾸려져있었다.

회관현관홀에 있는 푸리동과 금강산의 정치를 형상한 풍경화도 그러하지만 여러개의 사이막을 가진 홍심깊은 무대와 현대적인 음향 및 조명설비, 편리하면서도 정갈하게 꾸려진 분장실과 대기실 등 회관내부의 곳곳에는 구역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깐진 일본새와 노력이 력력히 깃들어있어 눈길을 뗄수 없었다.

매우 좋은것은 회관내부공기가 훈훈한것이였다.

알고보니 회관에는 2중전력공급체계가 서있었고 무동력보이라만 하여도 여러대나 설치되여있었다.

관람석에 편히 앉아 공연시작을 기다리는 관람자들, 그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느라니 구역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갈마들었다.

이윽고 공연이 시작되였다.

옆에 앉은 일군이 구역인민들의 공연관람열의가 너무 높아 초기에 예견했던 공연기간을 더 연장하였다고 이야기해주는것이였다.

그럴만도 하였다. 비록 나어린 학생소년들의 공연이였지만 종목선정도 잘되여있었고 안삼불도 척척 맞아돌아갔다.

공연은 한시간가량 계속되였지만 관중들은 련속 박수갈채를 보내는것이였다. 대성황속에 진행된 공연이였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회관건설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지난해 8월, 구역당위원회의 한 방에서는 문화회관개건공사와 관련한 협의회가 진행되였다고 한다.

연건축면적 2 400㎡를 포함하여 부지면적이 1만㎡이상에 달하는 아름찬 공사였다.

긴장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협의회를 마치면서 구역당책임일군은 드팀없는 결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오직 제손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강력한 공사지휘부가 무어지고 돌격대원들이 달려왔다.

구역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떨쳐나섰다.

구역도시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내부공사에 박차를 가했고 강서약수공장과 구역체신소의 일군들은 공사의 큰 몫을 맡아안고 뛰고 또 뛰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손으로!》, 대문짝같이 나붙은 속보의 제목이 들끓는 공사장의 전투적기백과 숨결에 박동을 더해주었다.

어느 한 단위의 일군인 권인웅동무와 전풀보수사업소 로동자 한영순동무를 비롯한 수많은 일군들과 주민들이 애국의 마음을 안고 공사를 성심성의로 지원하였다.

드디여 석달만에 불꽃튀는 개건전투가 끝난 날 구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회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

공사를 통하여 거둔 제일 큰 성과는 이 과정에 구역일군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것이고 구역주민들의 심장속에 실생활을 통하여 자력자강의 신념이 깊이 뿌리내린것이라고 하는 구역당책임일군의 말을 우리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남들이 머리를 젓던 방대한 공사를 단 몇달만에 훌륭히 접속하고 그 덕을 고스란히 인민들이 보고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가슴은 저도모르게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군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뼈속깊이 새기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달라붙는다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고 어디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더 높이 울려게 될것이다.

특파기자 주 창 선

인디아특명전권대사 공화국의 날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공화국의 날에 즈음하여 자스민다르 카스투리아 주조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6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보건상 강준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 외무성 부상 최희철동지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인디아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인디아공화국 대통령 람 나트 코빈드각하와 나렌드라 모디수상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조선과 인디아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부름따라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새 교수방법창조열의를 높인 혁신적인 사업기풍

김철주사범대학 일군들의 사업에서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김철주사범대학 일군들과 교원들이 지난 시기에 거둔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해갈 일념을 안고 진군의 보폭을 더욱 크게 내짚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원양성사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뜻깊은 지난해를 자랑찬 교육성과들로 빛내이는데서 대학앞에 중요한 과제로 나선것은 교육자들을 키워내는 후대교육의 원종장답게 새 교수방법들을 부단히 창조도입하는것이였다. 이것은 대학교육의 질을 급속히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인 동시에 학생들에게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교육자적자질을 키워주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였다.

여기에서 이곳 일군들이 잘한것은 교원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든것이다.

지난해초 당조직의 지도밑에 주정실학장은 모든 교원들의 교수관정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사실 한두명도 아니고 수많은 교원들의 교수관정을 진행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에서 이 사업을 조직한 목적이 있었다.

대학일군들은 일부 교원들이 새 교수방법창조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원인이 그들이 자신들의 교수수준이 강좌와 학부, 대학적으로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잘 모르는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수관정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하면 교원들을 분발시키고 대학안에 실력경쟁분위기를 고조시킬수 있었으며 전반적인 교수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릴수 있었다.

대학에서는 관정조직요강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학부들에 내려보내여 매 교원들의 실력을 강좌에서부터 관정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우수한 교육자들이 교수참관을 진행한 결과와 매 교원들이 본보기교수를 한가지씩 창조한것을 놓고 교수관정을 진행하였다.

학부적인 관정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교원들에 대한 최종적인 교수관정은 대학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심사성원들이 진행하여 순위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심사성원외에도 교원들을 참가시켜 평가하게 함으로써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였다.

이와 함께 교원급수별등수도 따로 내고 우수하게 평가된 교원들을 보여주기강의에 출연시켰다.

이 사업이 여러달동안 단계별로 심화되였다. 그 실효는 대단히 컸다. 교원들이 새 교수방법창조를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렸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기풍, 더 좋은 교수방법을 내놓기 위한 탐구의 열풍으로 온 대학이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었다.

날이 갈수록 강좌별, 학부별 사회주의경쟁열의가 고조되고 우수한 경험들이 광범히 교환되면서 교수의 질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게 되였다.

더우기 자랑할만 한 성과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수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걸음을 내짚은것이였다.

실례로 다기능화된 교실환경에서 실력이 높은 교원이 국부망을 통해 여러 교실의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하면서 합반강의를 진행하는 새 교수방법을 창조한것을 들수 있다. 대학일군들은 조진혁, 리향심교원들이 다방향교수관리프로그람을 개발하고 합반강의에서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많은 품을 들여 완성한 후에는 보여주기강의를 진행하였다. 이 방법은 종합강의실에 학생들을 모여놓고 진행하던 이전시기의 합반강의때보다 교수목적을 달성하는데서 확실히 우월했다. 교원들은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꾸준히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인식효과를 보다 높일수 있는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수많이 창조해낼수 있다는 신심이 백배해졌다.

결과 지난 한해사이에 근 20명의 교원들이 10월8일모범교수자의 영예를 지니고 70여명이 새 교수방법등록증을 수여받았으며 학생들의 실력이 훨씬 뛰여올랐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다음으로 주목되는것은 모든 사업을 새 교수방법창조에로 지향시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게 한것이다.

지난해 8월 대학앞에는 교육위원회의 지도밑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와 함께 적용된 사범대학교수요강들을 보다 발전완성시켜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섰다.

이들이 맡아안은 교수요강은 500여개에 달하였다.

이 사업은 종전과는 달리 형태별교수에 맞게 교원들이 적용해야 할 교수방법적인 문제들까지 실례를 들어가며 반영하여야 하는 책임적이면서도 어려운 과제였다. 교원대중이 발동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행할수가 없었다.

그때 주정실, 한영찬, 원영숙동무를 비롯한 대학일군들은 이 사업을 교원들의 새 교수방법창조열의를 더욱 고조시키는 좋은 계기로 만들 작전을 펼쳤다. 이 사업 역시 본보기교수요강을 작성하고 그를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였다. 철야전투가 벌어졌다.

일군들은 모든 강좌들에서 자기 전공과목에 해당한 교수요강을 채우쳐주는 교수방법들을 적용할수 있게 편성하도록 100여차에 걸치는 강좌별협의회와 대학련합강좌토론회를 조직하고 집체적힘과 지혜를 발동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투의 나날이 교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새 교수방법들을 더 많이 창조해나가는 사색과 탐구의 련속과정으로 되도록 토론도 해주고 방도도 가르쳐주면서 적극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대학에서는 방대한 과제를 얼마전까지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불길속에서 강철이 단련되듯이 교원들은 지난 한해를 이렇게 련속적인 전투로 이어오면서 몰라보게 발전하였다.

많은 교원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교수경연들에서 우승하고 제15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제18차 전국교육부문프로그람전시회에서 1등을 쟁취한것 등이 이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사범교육의 질을 높여 졸업생들가운데서 단 한명의 락정이도 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올해에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 높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모든 교육일군들이 혁신적인 안목을 지니고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 교원대중의 새 교수방법창조열의를 부단히 높여나갈 때 교육발전의 지름길을 열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명훈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만리마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생활,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를 진실하게 반영한 명작들을 창작창조하여 혁명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힘으로 부르죠아반동문화를 짓눌러버릴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힘을 더높이 발휘하기 위한 전투적인 창작창조활동을 벌려가고있다.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이 펼친 2018년 신년경축공연은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대진군을 힘차게 추동하였다. 또한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장들에 달려나가 혁명적인 예술활동을 벌리는 한편 인민이 바라는 명작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하여 불꽃튀는 창작전투를 진행하고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사람들이 올바른 혁명관과 인생관,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며 사회의 문명을 선도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사람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고 온 사회에 약동하는 기상이 차넘치게 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이다.

1970년대의 격동적인 화폭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문학, 영화, 연극, 가극, 음악, 무용, 미술, 교예를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창작된 한편한편의 명작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놀라운 감화력을 발휘하였다. 심오한 사상, 풍만한 예술의 세계와 더불어 온 사회에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기풍이 차넘치였다. 김덕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을 들었다놓는 혁명의 북소리가 전국의 근로자들을 보다 큰 로력적위훈에로 고무추동하였다. 뿐만아니라 형형색색의 어지러운 문예사조들이 범람하던 세계예술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인류예술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낸다고 하시면서 한편의 혁명적인 시나 명곡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이야말로 혁명의 승리적전진에 활력을 북돋아주고 사회의 문명을 선도해나가는 힘있는 추동력이다.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시대를 격동시키고 인민의 심금을 울리는 명작창작성과로 오늘의 혁명적인 총공세에 활력을 더해주어야 한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위력을 높이 떨치는것은 사상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더우기 혁명의 원수들이 우리 내부에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들이밀려고 끈질기게 책동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역할을 더욱더 부각시키고있다.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혁명적예술활동의 고귀한 전통과 창작창조체계를 고수하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 미학관을 창작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뿌리박은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시대의 벅찬 숨결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작품마다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과 생활,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사상전선의 기수답게 위력한 사상의 미싸일, 시대의 명작들을 펑펑 창작하여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힘을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다.

멋쟁이공장에 차넘치는 보답의 열정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을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1월생산계획을 지난 20일까지 완수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공장은 들은바 그대로 멋쟁이였다.

리영숙지배인은 당의 은정속에 공장이 년간 수천만개의 치약, 함수약, 각종 치과위생도구들을 생산하는 능력이 큰 치과위생용품종합생산기지로 꾸려진데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를 생산현장으로 안내하였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본 곳은 치약생산공정이였다. 사출기, 다층압출기, 6색인쇄기, 제관기, 어깨사출기, 마개기 등을 거쳐 생산된 치약츄브들에 원료배합장에서 진공배합되여 숙성된 치약이 자동주입되고 봉합된 다음 개별곽포장, 지함포장되여 제품창고로 입고되는 치약생산공정의 모든 요소들이 자동화되여있었다.

몇명 안되는 로동자들이 익숙된 솜씨로 기계를 다루는 모습도 놀라왔지만 사과향치약, 생당쑥향치약, 풀소치약, 어린이치약을 비롯하여 방대한 량의 치약들이 이 자그마한 곳에서 생산되고있다는 지배인의 말에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예로부터 이발이 든든한것을 오복의 하나라고 일러오고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치과위생용품공장을 일떠세울것을 발기하시고 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설비들도 일식으로 마련해주시며 현대적인 공장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것이 아니던가.

후더워오르는 마음을 안고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가해주신 함수약생산공정, 치과위생도구생산공정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며 치과위생용품연구소에로 걸음을 옮기였다.

연구소에서는 인민들에게 질좋은 치약들을 더 많이 안겨주기 위한 새 제품개발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고있었다.

이곳 연구집단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질좋은 치과위생용품을 안겨주려던 소원을 풀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이 뜨겁게 새겨져있었다.

하기에 김영훈소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기 위해 온 연구집단이 떨쳐나선데 대하여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는 현재 이발을 든든하게 하는데서 효과가 좋은 미백치약, 생색치약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기능성치약들을 하루빨리 개발하기 위해 치약연구실과 약제 및 함수약연구실 등의 연구사들이 전투를 벌리고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원료로 만든 기능성치약들이 더 많이 쏟아져나올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의 눈앞에는 머지않아 이곳에서 생산된 새 제품을 받아안고 기뻐할 인민의 행복한 모습이 뜨겁게 어려왔다. 그럴수록 질좋은 치과위생용품들이 생산되는 공정 하나하나가 무심하게 안겨오지 않았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넘쳐나고 보답의 일념으로 끓어번지는 일터였다.

우리는 멋쟁이공장에 차넘치는 창조와 혁신의 기상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공장정문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옥별

우리 식의 체육기술로 더 많은 금메달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인들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지닌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 식의 위력한 경기전법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전련승하여야 합니다.》

체육부문의 일군들과 선수, 감독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종목별협회들에서는 올해에 진행되는 국제경기들에 참가할 선수들에 대한 교수훈련지도의 중심을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을 창조하는데 두고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다.

특히 교예체조협회에서는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선수들의 체질적특성에 맞고 다른 나라 선수들을 압도할수 있는 높은 수준의 새로운 특기기술을 창조하기 위해 감독, 연구사들과의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지난해 9월 우리 나라의 정금화, 변윤애선수들은 제10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 성인급 녀자 2인조형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당시 경기들에서 우리 선수들이 수행한 새 기술동작은 세계 그 어느 나라 선수들도 수행하지 못하는 난도가 매우 높은 동작이였다. 이로써 우리 녀자선수들은 성인급 녀자 2인조형경기에서 대회 3련승을 기록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속에는 우리 식의 체육기술을 창조하기 위해 열정을 바쳐온 교예체조협회 일군들과 상업성체육단 교예체조감독 장금화동무의 피타는 노력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장금화동무는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에 비하여 자신이 받아안은 사랑이 너무도 크게만 생각되기때문이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더 좋은 경기성과로 기어이 보답할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목표를 높이 세웠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달성되는것은 아니다.

교예체조에서 력사가 있고 경기성적이 좋은 세계적인 강팀들을 누르자면 결정적으로 우리 식의 기술을 창조하여야 하며 선수들이 자기 식의 특기기술을 완성하도록 훈련지도를 짜고들어야 하였다.

장금화동무는 협회일군들의 지도밑에 지난 시기에 진행된 국제경기들과 자기가 맡은 선수들의 육체, 기술적상태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해나갔다. 사색에 사색을 거듭해나가던 그는 녀자 2인조형 윗선수로 갓 훈련을 시작한 변윤애선수에게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그의 허공에서의 회전기술과 균형성이 매우 좋았던것이였다. 변윤애선수의 이 좋은 점을 적극 살린다면 얼마든지 특기기술을 완성할수 있었다.

이렇게 선수들을 깊이 파악한 감독은 난도높은 기술동작들을 구상한데 기초하여 그 실현을 위해 과학적인 훈련지도를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정금화, 변윤애선수들도 감독과 마음을 합치며 높은 수준의 난도동작완성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차례나 어려운 동작수행을 반복하였다.

이런 피타는 노력속에 우리 선수들은 세계적인 난도동작을 완성할수 있었고 제8차, 제9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에 이어 제10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에서도 련이어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할수 있었다.

어찌 이들뿐이랴. 대평강체육단의 전영석감독과 공영원, 리효성선수들도 난도높은 기술동작들을 완성함으로써 제10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교예체조협회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더 높은 기술발전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교예체조협회만이 아닌 모든 종목협회들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으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여 공화국기발을 세계의 하늘가에 휘날리기 위한 이들의 줄기찬 공격전은 반드시 훌륭한 성과로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주령봉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칠 일념안고 훈련에 박차를 가해간다.
—평양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당의 축산정책을 이악하게 관철해나가는 일본새

연산군 송촌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자면 농사를 잘하는것과 함께 축산업과 수산업을 발전시켜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연산군 송촌농장은 군적으로 염소기르기를 잘하는 단위로 소문이 났다. 농장에서는 해마다 수백마리의 염소를 길러 8t의 젖가공품을 리안의 탁아소와 유치원어린이들, 소학반학생들에게 공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해마다 많은 고기를 생산하고있다. 축산을 잘하니 여러모로 좋다고 이곳 사람들 누구나가 말하고있다. 이 성과는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볼수 있도록 당의 축산정책을 이악하게 관철해나가는 이곳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기풍이 안아온 결실이다.

끝장을 볼 때까지 일관하게

10여년전 민인호동무가 리당위원장사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하여도 농장의 축산토대는 보잘것없었다.

농장의 축산형편을 하나하나 료해하는 그의 귀전에 문득 이곳에서 오래동안 살고있는 한 로인이 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일군들도 여러번 바뀌고 그때마다 축산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뿐이지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

그에게는 평범한 로인의 말이 무심히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이 말을 당정책을 앞장에서 관철해야 할 자기에 대한 충고로 받아들이였다.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에서 오분열도식일본새를 철저히 뿌리뽑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될 때까지 일관하게 틀어쥐고 근기있게 내밀어야 한다. 그래야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할수 있다.

그는 축산을 활성화시킬 결심을 굳게 다졌다.

막상 축산을 추켜세우자고 하니 불리한 먹이조건, 미약한 축산토대 등을 핑계하면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가능성은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계기는 주동적으로 성숙시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자자구구 새길수록 그는 눈앞이 트이는것을 느끼였다. 지금까지 불리하게만 여겨지던 모든것이 축산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안겨들었다.

사실이 그러하였다. 농장은 산을 많이 끼고있었다. 그러나 산만 잘 관리하고 리용해도 축산을 대대적으로 내미는것은 문제로 되지 않았다. 더우기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며 알곡먹이대신 풀을 리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정책의 진수를 파악할수록 그의 신심은 더욱 백배해졌다.

당의 축산정책의 요구대로 풀먹는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자. 바로 이것이 농장의 실정에서 축산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의 이런 호소에 일군들모두가 호응해나섰다.

일군들은 산이 많은 자연지리적조건과 번식능력, 경제적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염소를 기르기로 하였다.

목표가 명백하고 승산이 확고하면 완강한 실천력이 따라서기 마련이다.

그들은 튼튼한 축산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었다.

염소우리와 창고 등 건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은 헐치 않았다. 그러나 일군들은 축산을 잘하여 흥할 농장의 앞날을 내다보며 순간의 주저도 몰랐다. 해마다 산에 수천그루의 나무를 심는것과 함께 자연풀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청년분조원들이 염소기르기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문제도 척척 풀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도 큰 힘을 넣었다. 아무리 축산을 근기있게 내밀자고 하여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것이 일군들의 립장이였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할 일이 많고 로력도 긴장하였지만 청년분조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축산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축산을 높은 수준에서 전망성있게 내밀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당의 축산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해나가는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염소마리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농장에서는 그 덕을 톡톡히 보게 되였다.

지대적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것은 당정책적요구이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염소기르기를 지대적특성을 따져가며 과학적으로 해나갔다.

이들이 겨울철염소기르기를 어떻게 조직했는지 보기로 하자.

겨울철에는 먹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 그래서 많은 단위들에서는 건초를 비롯하여 겨울에 먹일것을 따로 장만하군 한다.

그러나 일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연한 풀판이 아니라 경사가 급한 산이 많은 지대적특성에 맞게 겨울에도 염소를 방목하여 먹이문제를 해결했다. 즉 건초는 새끼를 낳게 된 염소에게만 1주일정도 먹이였다.

일군들은 가을철에 하루방목시간을 최대로 늘여 염소의 영양상태를 좋게 하였다. 이때에는 방목공들이 오전과 오후에 교대를 해가며 하루 8-9시간을 방목하였다. 결과 염소가 먹이조건이 불리한 겨울철을 무난히 넘길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였다.

그리고 눈이 내린 다음 방목을 할수 있는 예비풀판도 따로 장악하도록 하였다. 예비풀판으로는 산의 남쪽경사지들을 선택하였다. 이런 곳은 눈이 내린 다음날이면 퍼그나 녹기때문에 얼마든지 염소를 방목할수 있었다.

일군들은 새끼낳이시기를 바로 정하여 폐사률도 낮추도록 하였다. 즉 겨울철에 염소가 무질서하게 새끼낳이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들은 4월초면 봇도랑주변과 양지쪽에 햇풀이 나기 시작하는 자기 지방의 자연기후조건으로부터 3월 20일경부터 새끼낳이를 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렇게 하면 젖을 뗀 새끼들이 햇풀을 먹고 잘 자라기때문에 무질서하게 새끼낳이를 할 때보다 폐사률을 훨씬 낮출수 있었다. 한편 어미염소도 새끼를 낳은 후 햇풀을 먹기때문에 젖이 잘 나오게 되여 좋았다.

일군들은 수의방역사업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재를 우리바닥과 우리앞에 펴주어 염소의 발쪽병을 막은것이다.

원래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는 발쪽병을 치료하려면 류산동용액을 쓰는것으로 알려져있었다. 즉 우리앞의 바닥을 일정한 넓이로 얕게 파고 이 용액을 넣어 염소가 밟고 지나가게 하는것이였다. 그런데 염소가 발을 적시기 싫어 용액이 들어있는 곳을 뛰여넘군 하는것이 문제였다. 때문에 효과를 볼수 없었다. 그렇다고 매 염소마다 붙들어 이 용액을 발에 발라주는 품도 간단치 않았다.

방도를 찾던 일군들은 쉽게 마련할수 있는 재를 우리바닥과 앞에 펴놓아 이 병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재는 알카리성을 띠므로 병균을 억제하는것은 물론 염소가 자연스럽게 밟고다닐수 있으므로 병예방에 아주 좋았다.

주변에 많은 다릅나무를 리용하여 염소주둥이에 생기는 병치료에서 성공한것도 다 집짐승기르기를 지대적특성에 맞게 할데 대한 당의 뜻대로 축산을 내민 일군들의 일본새가 안아온 성과였다.

농장의 축산경험은 일군들이 오분열도식일본새를 뿌리빼고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의 방침을 일관하게 관철해나갈 때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황철민

구운흙생산을 실정에 맞게

삼지연군 보서농장 남새작업반에서 구운흙생산을 실정에 맞게 잘해나가고있다.

작업반에서는 지난 시기 흙구이를 분조단위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하니 많은 땔감을 소비하면서도 생산된 구운흙의 량과 질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하기가 헐치 않았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현실적조건에 맞게 방법론과 요술을 부단히 탐구해나갔다. 이 과정에 흙구이를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원칙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였다. 이렇게 되여 작업반에서는 구운흙생산이 분산과 집중의 방법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따산해보니 매 살림집의 아궁에서 하루에 보통 3kg의 질좋은 구운흙만 정상적으로 생산해도 올해농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구운흙을 얼마든지 마련할수 있었다.

흙을 굽기 위해 찰흙성분이 많은 흙을 1kg정도의 크기로 빚어 리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흙덩이를 아궁이의 한쪽구석에 넣어주어 높은 열을 받지 않게 하였다. 온도가 지내 높으면 응당한 효과를 낼수 없기때문이다.

작업반초급일군들부터 구운흙생산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작업반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나갈 일념안고 구운흙생산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결과 지력을 높일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선원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할 열의를 안고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본사기자 찍음

미국의 대조선압박정책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미국이 새해벽두부터 케케묵은 제재압박타령을 늘어놓고있다. 틸러슨을 비롯한 국무성의 어중이떠중이들은 입만 벌리면 북남대화는 《환영》하지만 대조선압박은 계속되여야 한다, 《최대의 압박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있다.

추종세력들이 또한 앵무새처럼 그것을 되받아넘기며 장단을 맞추고있다. 일본수상 아베는 유럽나라들을 돌아치며 가는 곳마다에서 조선에 대한 제재압박에 협력하라고 괴대를 돋구며 책책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각본에 따라 지난 조선전쟁시기 고용병들을 파견한 나라들과 일본의 대표들이 카나다에 모여 꿍꿍이판을 벌려놓고 대조선압력을 강화한다고 소동을 피웠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년초부터 대조선제재압박을 떠들어대는것은 별로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지난해말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백악관의 공식웨브싸이트를 통하여 임기 첫해의 《외교사업성과》는 미국시민들과 본토에 대한 위협제거를 위해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것이라고 떠들었다. 미국무장관이라고 하는 틸러슨도 조선을 핵포기를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할수 있는 방도는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것뿐이라고 횡설수설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아직까지 대조선압살책동에 기대를 걸고 올해에도 낡아빠진 제재북을 두드려대려 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망상하고있다. 상대를 잘못 보았다.

미국의 력대 집권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정책들을 끈질기게 실행해왔다. 우리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을 가지고있는 그들은 우리와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항상 대결을 고취하는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조미대결과정은 미국이 압박하면 할수록 주체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반면에 미국의 운명은 날로 위태로와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지난해에 우리 국가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를 《세계적인 위협》으로 몰아붙이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압박의 도수를 최대로 높였다.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기 위한 유엔《제재결의》라는것을 4차에나 조작해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압박으로 될것이라느니, 진로를 변경시키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라느니 하고 희떱게 놀아댔다. 핵항공모함,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을 비롯한 수많은 핵전략자산들을 들이밀어 사상 최대규모의 핵전쟁연습소동을 그칠새없이 벌리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위협공갈을 더욱 강화하였다.

끈질긴 제재압박과 군사적위협공갈에 견디지 못하고 힘들게 마련한 전쟁억제력을 제손으로 파괴한 나라들처럼 우리 나라도 손들고 나오리라는것이 미국의 어리석은 타산이였다.

현실은 어떠했는가. 남들같으면 열백번나마 손들고 나앉았을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우리 천만군민은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보복열기를 총분출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미국의 련이은 유엔《제재결의》조작놀음은 우리 나라가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하여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게 만들었다. 경제건설에서도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미국의 그 어떤 제재와 봉쇄, 군사적압력도 자력자강을 동력으로 한 주체조선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이 엄연한 현실로 뚜렷이 확증되였다.

국제사회가 최근년간 조미대결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방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조선은 가혹한 제재를 받고있지만 경제는 장성하고있다, 평양에서는 눈부신 건축물들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 지난 시기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건설번영기는 제재가 조선의 경제를 약화시켜 핵포기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갈것이라는 예측을 뒤집어엎고 전문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있다, 조선은 미국에 도달할수 있는 미싸일시험발사를 수차에 걸쳐 단행하였으며 핵탄두를 미싸일에 탑재할수 있는 기술까지 장악하였다, 결국 유엔의 대조선제재도 무맥하다는것이 드러났다, 조선에 대한 제재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시하여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서방언론들은 전반적인 국면에서 볼 때 조선은 미국보다 공세적인 립장이며 조선의 전략무기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있다, 온갖 가혹한 시련을 겪어온 조선에 있어서 미국이 추구하는 《최대의 압박》을 짓부시는것은 식은죽먹기이다 라고 하면서 초조해하는 미국과 배심든든한 조선, 이것이 현 조미관계의 본질이라고 분석평가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제재소동이 파산을 면치 못한다는데 대한 명백한 실증이다.

미친 나발만 정신없이 불어대면 트럼프는 중국을 움직여 조선의 핵개발을 저지시키려던 미국의 계획은 실패하였다고 실토하였다. 모략과 날조의 능수인 미중앙정보국도 조선의 핵무기계획을 포기시킬 방법이 더는 없다는 평가서를 내지 않으면 안된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아무런 경제적련계나 접촉도 없는 미국과 그 추종국들이 《추가제재》니, 《단독제재》니 하며 날뛰는것은 세상사람들을 웃기는노릇이다. 우리를 압박할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더이상 없다는데 미국의 비극이 있다.

조선문제전문가들은 트럼프행정부에 《제재로 조선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것은 바보들이나 할짓이다. 조선의 핵무기는 파괴할수 없다. 군사적행동은 무모한 도박이며 조선의 핵공격능력이 강화된 상태에서 그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수 있다.》고 충고를 주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초강도제재압박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은 저들의 패배와 비참한 몰락에 대한 공포와 절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자력자강의 정신이 강하고 최후승리를 확신한 천만군민의 힘으로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미국이 우리와의 대결에서 아직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계속 무모하게 날뛴다면 더 큰 수치와 패배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리 현 도

북남관계개선에 역행하는 대결공조책동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정세흐름과 배치되게 우리를 겨냥한 군사적대응방안을 꾸며내고있다. 얼마전 워싱톤에서 있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제2차 외교국방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회의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회의에서는 《핵문제해결》을 위한 쌍방사이의 확장억제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며 그 누구의 《핵, 미싸일위협》을 걸고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미전략자산들의 순환배치를 계속하는 문제 등이 모의되였다고 한다. 미국은 《모든 군사적능력을 활용》한 《방위공약》의 재확인에 대해 떠들며 호전적광기를 부리였다. 이것이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완화와 민족적화해와 단합,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제2차 외교국방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회의는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정세를 격화시키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제물로 삼으려는 상전과 주구의 범죄적흉계의 산물이며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역행하는 범죄적인 반공화국압살공조책동이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으로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그에 로골적으로 찬물을 끼얹고있다. 미국은 겉으로는 북남대화에 대한 《지지》니, 《환영》이니 하고 떠들고있지만 실지로는 우리 민족이 화합하고 통일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이 땅에서 핵전쟁을 일으킬 흉심에만 사로잡혀있다. 최근 미제가 괌도에 《B-2》, 《B-52》핵전략폭격기들을 련이어 끌어들이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집결시키면서 본토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유사시에 대비한 비밀특수작전준비를 은밀히 추진하고있는 사실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조선반도에 긴장완화의 기운이 나타나는것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그에 악랄하게 훼방을 놓군 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패권을 장악할것을 꾀하고있는 미국은 조선반도의 항시적인 긴장상태를 추구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고 남조선당국에 《협의체》니, 《동맹》이니 하는 각종 예속의 올가미를 씌워 영원히 전쟁사환군으로 써먹으려는것이 미국의 심보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서의 미국의 흉악한 몰골은 다시금 낱낱이 드러났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계책에 놀아나면서 겨레의 통일지향을 거스르고있는데 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군사적대결망동에 계속 매어달리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이번 전쟁모의판은 북남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린 속에 벌어졌다. 남조선군부세력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 누구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비한 《3축타격체계》의 조기구축과 미전략자산들의 정례적전개 및 배치확대, 미국과의 군사협력강화 등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미제침략군의 핵타격수단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대적으로 쓸어드는것이 이 지역의 평화는커녕 핵전쟁발발의 위험을 더한층 고조시키고 극도의 긴장국면을 조성하게 될것이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리성적으로 처신해야 할 시기이다. 남조선당국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불순한 군사적모의가 모처럼 살려낸 북남관계개선의 소중한 불씨를 꺼버리고 제 운명도 망치게 하는 어리석은 처사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해내외의 온 겨레는 북남화해분위기에 배치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군사적공모결탁행위를 견결히 반대배격해나서야 할것이다.

심 철 영

우리 민족의 대사를 그르치려는 섬나라 난쟁이들의 망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우리의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주동적이며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얼어붙었던 북남관계가 개선의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우고 조선반도정세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는데 대해 지금 내외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고 지어 우리와 한사코 엇나가던 나라들까지도 기대와 관심을 표시하고있는 때에 유독 일본반동들만이 마치 저들 섬나라에 폭탄이라도 한발 떨어진듯이 법석 고아대며 천방지축 날뛰고있다.

수상 아베와 내각관방장관, 외상, 방위상을 비롯한 일본정계의 거두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북조선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페기에 나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의미있는 대화가 된다.》, 《대북강경메쎄지를 북에 제대로 전하는 대화가 되기를 바란다.》, 《북남대화에 관계없이 국제적공조에 의한 기존의 대북압박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 등의 속뒤틀린 악담들을 련이어 뱉아내며 군수없이 놀아대는가 하면 언론들은 그들대로 남조선이 《대북압력을 뒤전에 밀어놓고 북에 휘둘리운다.》느니, 《북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느니, 《남측국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여론을 퍼뜨리며 어떻게 하나 북남사이에 쐐기를 쳐보려 하고있다.

한편 일본당국자들은 우리의 탄도로케트발사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22일 사상처음으로 도꾜 한복판에서 대규모대피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일본 NHK방송이 례황이 가장 복잡한 퇴근시간에 《북이 미싸일을 발사한것으로 추정된다.》는 경보를 발령하였다가 《정정》하며 난데없는 소동을 벌리는 등 극도의 공포분위기를 연출하고있다.

섬나라에서 일고있는 이러한 광기를 두고 우리 겨레는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되는것을 못내 배아파하는 일본것들의 불순한 속내가 다시금 똑똑히 드러나고 이웃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잔치상에 기어코 재를 뿌리고싶어하는 못된 버릇이 살아나고 있다고 한결같이 성토하고있다.

지난 세기에 아시아와 세계인류앞에 용납 못할 만고죄악을 저지른 전범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한데다 그에 대한 사죄배상마저 의연히 거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아직까지 정상국가대렬에 끼우지도 못하며 오직 미국의 바지가랭이에 들어붙어 기생하는 정치난쟁이 일본은 우리 민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왈가왈가할 그 어떤 자격도, 권리도 없으며 따라서 그에 귀기울일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세계가 열렬히 지지찬동하는 북남대화와 조선반도정세완화를 두고 그토록 류달리 신경을 돋구면서 음으로 양으로 훼방질하는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아베일당이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변화를 저들의 정치적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요인의 하나로 간주하고있기때문이다.

극우세력의 대표자인 아베가 집권기간 어떻게 하나 현행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을 《전쟁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며 나아가 저들의 오랜 야망인 군국주의부활을 실현하는데 자기의 정치적승부수를 걸고있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아베에게 있어서 조선반도의 정세불안정과 군사적긴장격화는 헌법개정에 더없이 좋은 명분으로 되며 반면에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것처럼 불길한 악몽은 없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지난해에만 보더라도 부정추문사건으로 하여 민심의 배척을 당하고 《아베노믹스》라는 허황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심각한 집권위기에 빠져들게 되자 아베는 우리의 핵무력강화조치를 일본렬도에 대한 《위협》으로 둔갑시켜 요란하게 떠들면서 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를 주장하는 자기에 대한 지지표를 긁어모았으며 이를 토대로 중의원을 급작스레 해산하고 조기선거를 단행하여 재집권, 장기집권의 토대를 닦아놓을수 있었다. 앞으로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겠다는 아베의 기도가 실현되는가 마는가 하는것도, 당면하여 올해 9월에 진행되는 자민당총재선거에서의 재선여부도 결국 조선반도정세변화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세계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고 유명무명의 정치인들이 있지만 아베와 같이 이웃나라의 정세긴장을 입구칠심 바라며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유치하고 사악한 정치인은 그 어디에도 없다.

력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분렬과 전쟁에서 큰 리득을 보며 살아온 간특한 일본으로서는 북과 남이 손을 잡고 나설수록 저들이 제일 많은것을 잃게 될것이라고 간주하고있다.

아베정권이 친일매국노의 혈통인 박근혜패당과 작당하여 강제로 만들어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두고 확산되는 론난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한》미일사이의 《대북공조》니, 《3각군사동맹》이니 하는 구실밑에 일본것들이 박근혜역도를 얼려 어물쩍 체결해버렸던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백지화할데 대한 각계의 항의가 비발치고있다. 만일 북남사이에 지금의 화해흐름이 가속화되어 관계개선의 전기가 열리고 조선반도정세가 안정되면 남조선을 《3각군사동맹》에 끌어들일 구실도 사라지게 되며 따라서 이를 명분으로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어떻게 하나 덮어보려는 일본의 얕은 간계가 완전히 파탄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더우기 일본으로서는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대일공세에 나서는 경우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력사와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데 대한 전체 조선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더는 회피하기 어렵게 될것이며 국제무대에서 가뜩이나 취약한 저들의 지위가 땅바닥에 떨어질수밖에 없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다.

이로부터 앞뒤로 숨통이 막히게 된 일본반동들은 우리 민족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가는것을 기를 쓰고 가로막기 위해 각방으로 날뛰는 한편 미국상전이 그 앞장에 나서도록 트럼프의 귀전에 졸라닥질을 해대면서 저들에게 유리한 《국제적공감대》형성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약삭바르게 리해타산을 앞세우며 남보다 한발 먼저 내짚는다고 자처하는 왜나라 정객들이 이번만은 헛으로 계산을 잘못하고있다.

우리가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을 이룩함으로써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로서의 지위가 보다 공고해진 오늘 조선반도를 둘러싼 형세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고있으며 북남관계에서의 현 정세변화는 이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다. 한다하는 대국들이 앞을 다투어 우리 공화국과의 새로운 관계개선을 모색하고있으며 평양으로 가는 길에 남먼저 오르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있다.

이러한 때에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토질병》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헛된 모지름을 쓰고있으니 일본이야말로 중세기적후진성을 체질로 하는 미국의 속국, 영원히 이웃나라들과 어깨나란히 동행할수 없는 외로운 《섬》이라고 락인찍혀 마땅하다.

이제 일본이 뒤늦게나마 저들의 아둔하고 미련한 행실을 후회하며 어느 뒤꼬리에 붙어서라도 평양행을 타보겠다고 허겁지겁 헤덤빌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인민에게 갚지 못한 만고죄악의 대가에 잘못 놀린 《입터》까지 합치면 결과가 어떠할지는 그들자신이 더 잘 알것이다. 아마 일본은 섬나라땅을 통채로 섬겨바쳐도 평양행 차표를 영원히 구하지 못하게 될수도 있다.

《자기 한 일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이 일본속담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처지가 얼마나 가련해졌는가를 싫어도 인정해야 하며 앞뒤도 가리지 못하고 시도 때도 분별못하는 얼간이짓이 후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를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일본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다면 조선민족은 버리고버린 드센 주먹으로 세기와 년대를 넘어오며 이 강토우에 피로써 새겨진 천추의 한을 반드시 풀고야말것이다.

우리 겨레는 일본의 태도를 엄정하게 주시할것이다.

조일교류협회 대 철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을 연기할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주장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23일에 개막된 제네바군축회의 1기회의에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분위기에 역행하는 군사적움직임이 나타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혔다.

새해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정부의 주동적인 발기와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정세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분위기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군사적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것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극도의 대결국면에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리고 해마다 무분별하게 감행되는 미국주도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정세격화의 근원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면 합동군사연습을 연기할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지하여야 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각종 형태의 핵전쟁연습들을 전면적으로 종식시켜야 한다.

상임대표는 계속하여 우리 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것이지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일본 핵전쟁연습에 광분

미국이 핵전략자산들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계속 끌어들이며 일본과 공모결탁하여 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다.

22일 미공군의 핵전략폭격기 《B-52》 2대, 전략폭격기 《B-1》 2대가 일본항공《자위대》의 《F-15》전투기 4대와 함께 오끼나와주변상공에서 침략전쟁도발을 위한 공동훈련을 벌렸다.

이보다 앞서 16일 미국은 《B-52》핵전략폭격기 6대를 괌도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배비하였다 한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장본인들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반테로전》은 참혹한 파괴, 살륙전

수리아의 라까시에서 심각한 인도주의상황이 지속되고있다.

현재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되였다. 전기도 의료기관도 없다. 절실히 필요한 물도 부족한 상태이다. 도처에 매설된 지뢰에 의해 매일과 같이 인명피해가 나고있다. 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성도 높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집이 없어 피난민수용소들에서 눈뜨고는 차마 보지 못할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침략적인 《반테로전》의 후과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라까시는 《이슬람교국가》가 저들의 수도로 선포하였던 도시로서 지난해 10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에 의해 《탈환》되였다. 미국은 이것을 《반테로전》에서 저들이 거둔 가장 큰 《공적》으로 묘사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이 내흔들고있는 《승리》의 간판은 수많은 라까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져있다.

동맹세력들을 내세워 라까시를 포위공격한 4개월기간에 미국은 이곳에서 무차별적인 공중폭격을 감행하였다.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의 피해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한 민간인사상자수가 계속 발표되여도 《실수》라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댔다.

미국은 오직 저들이 지원하는 동맹세력이 하루라도 빨리 이 도시를 함락할수 있게 하는데만 급급해하였다. 수리아에서 《테로분자들을 소탕》한다고 하면서도 테로세력을 음으로양으로 비호두둔해주고 그들을 내세워 반미적인 이 나라 정부를 전복시킬 꿍꿍이를 꾸미는 량면술책에 매달렸다.

그런 속에서 수리아정부군은 여러 나라들의 지원밑에 테로분자들에게 빼앗겼던 도시와 지역들을 련속 해방하며 전과를 확대해나갔다.

급해맞은 미국은 《반테로전》을 벌린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 라까시에 공습을 미친듯이 들이대였다. 도시공습에 동원된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전투기들은 하루출격회수와 폭탄투하량에서 전례없는 기록을 세웠다. 국제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까지 거리낌없이 퍼부었다.

그러나 미국의 무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폭격으로 죽은 사람들은 테로분자들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이였다. 4일간의 공습으로 250명의 민간인이 죽고 수십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빚어진적도 있었다.

그 막뒤에서 테로분자들을 풀어 빼돌린 미국은 군사적힘으로 이 도시를 탈환한것처럼 광고하였다.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에 의해 《해방》된 라까시의 모습은 그야말로 살풍경이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도처에서 시체들이 나뒹굴고있다.

로씨야국방성 대변인은 미국주도의 공습으로 라까시에서 수천명의 평화적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서 이 도시가 제2차 세계대전시기 미국과 영국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폐허로 되였던 도이췰란드의 드레즈덴시를 방불케 한다고 말하였다.

1945년 미국, 영국군의 주단식폭격에 의해 당시 2만 5 000명의 드레즈덴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지구상에서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는 재가루만 날리는 곳으로 변하였다. 2009년에 도이췰란드정부는 《드레즈덴의 참사》로 기록된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장충돌과 폭력행위를 방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드레즈덴상을 제정하기까지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말에 빚어진 《드레즈덴의 참사》가 21세기 10년대에 수리아의 라까시에 펼쳐졌다. 수리아외무 및 이주민성도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자들이 민간인들의 시체우에서 라까시의 《해방》을 경축하고있다고 분격을 표시하였다.

문제는 미국이 라까시에서 저지른 저들의 피비린 죄악을 감추어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있는것이다. 라까시에 대한 포위공격당시 미국은 《신변안전》과 《비밀보장》을 구실로 기자들이 전선가까이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저들의 야만적인 대규모적파괴와 인간대살륙의 진상을 화면에 담을수 없게 하였다. 라까시함락이후에는 도시에서 평화적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자금》을 긴급히 지출한다고 생색을 냈다. 수리아는 미국이 벌린 이러한 놀음은 저들이 도시에서 감행한 파괴행위를 가리우기 위해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까밝혔다.

아직까지 라까시에 조성된 인도주의위기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있는것은 미국이 떠드는 《지원》이 위선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국제사회는 라까시의 참사를 통해 미국의 《반테로전》의 진상을 다시금 똑똑히 보고있다.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특등범죄자이다.

본사기자 안 철 권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돌림감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휩쓰는 A형돌림감기비루스가 예년에 없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있다. 돌림감기의 만연은 면역력이 약한 로인들과 어린이들은 물론 건장한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심각한 사태를 빚어내고있다.

최근 일본의 《도꾜신붕》은 전국적으로 1주일동안에 약 124만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마지막주보다 20만명이상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파키스탄동부의 펀잡주에서 한달동안에 35명이, 중국 홍콩에서는 14일현재 15명이 사망하는 등 돌림감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아프리카에도 전파되고있다. 뚜니지에서만도 전국적으로 45명이 돌림감기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또한 가나의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는 40여명의 학생들이 돌림감기비루스에 감염되였다고 한다.

유럽의 남동부에 위치한 알바니아에서도 비교적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나라 보건기관은 지난 8일부터 15일사이에 약 1만 1 000명이 돌림감기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서는 18일현재 24명이 사망하였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B형돌림감기비루스가 돌고있는 도이췰란드에서는 지난해 10월이래 3 700여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되였다고 한다.

아메리카대륙의 북부에 있는 카나다와 미국에서도 많은 돌림감기환자가 발생하고있다.

미국에서만도 올해에 들어와 19일현재까지 30명의 어린이가 돌림감기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거의 모든 지역을 휩쓸고있는 돌림감기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는 1차적인 대책으로서 와찐접종을 받아야 하며 열나기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격리시켜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돌림감기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위생선전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감기비루스를 전파시키는 인자들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이다. 감기에 걸리면 사람들은 자주 기침과 재채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비루스는 무려 10만개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의 보건기관들에서는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손을 항상 깨끗이 씻을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있다.

이밖에도 비행장과 항만, 국경역들에서의 검역사업을 강화하는 등 돌림감기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돌림감기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적극화될것이다.

박 예 경

미국의 거짓선전을 규탄

베네수엘라외무성이 21일 항의각서를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거짓선전깜빠니야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이 나라 주재 미국대사관이 마두로정부전복이 박두하였다는 도발적인 여론을 내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각서는 트럼프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인민과 합법적으로 선거된 현 지도부를 반대하는 침략정책에 끈질기게 매달리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각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정부를 반대하는 불순세력을 비호두둔하고 재정적으로 뒤받침해주고있다고 폭로단죄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사이의 협조

마로끄와 리베리아가 21일 두 나라 국회들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알제리와 나이제리아는 아프리카동맹과 유엔무대에서 안전, 반테로, 경제 등 여러 분야의 문제들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을 모독한 트럼프를 단죄

짐바브웨외무성이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아프리카나라들을 모욕한 미국대통령 트럼프를 신랄히 단죄하였다.

성명은 아프리카나라들을 쓸한 이주민들을 배출하는 《더러운 변기통》에 비유한 트럼프의 망언은 충격적이고 놀랍기 그지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현대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짐바브웨는 트럼프에게서 치욕을 당한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인종차별적인 망동을 규탄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미국의 계속되는 무기판매책동

미국무성이 19일 쿠웨이트에 대한 65억 3 000만US$어치의 무기판매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34대의 《F-35》함동타격전투기들과 그 부분품들이 판매되게 된다.

이것은 미국이 무기장사로 돈주머니를 불구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81015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탁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